

원자력연료



Love is

믿음을 바탕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것

KNFC 캠페인® 작은 것부터 실천합시다

Back to the Basic!

'이제 첫 걸음을 시작합니다.
늘 지금처럼, 늘 처음의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몇 해 전에 발표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던
광고내용의 일부입니다.
처음의 마음가짐은 기본을 잘 지킨다는
약속의 뜻이기도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정해진 법과 규칙 속에서 생활합니다.
법과 규칙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편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신분증 패용, 정해진 근무복 착용,
근무시간 준수 등
기본으로 돌아가서 실천하면 쉽습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해가는 마음가짐,
이것이 첫 마음이고 기본입니다.

CONTENTS

Work station

- 02 KNFC 캠페인 | Back to the Basic!
- 04 경영 메시지 | 왜孝行이百行之本인가!! | 감사
- 06 이슈 | 2005 산업안전경영대상 대상 수상
- 10 기술리포트 | 임계 열속 상관식 개발 | 황순택
- 12 특집_ 원자력이 있는 곳 | · 원전지역 기행- 경주
· 도둑 전기 쓰던 시절 | 방지혁
· 고향 친구들에게 | 신중철

Info station

- 08 직장인 칼럼 | 느낌과 음의 자세 | 권경리
- 18 기자단상 | 전기와 미술쇼 | 서두섭
- 29 문화가 산책 | 편집실
- 32 KNFC 뉴스
- 46 게시판

Life station

- 20 두 번째 프로젝트 | 류찬호 기술과장 부부
- 22 가족기행 | 매화를 보며 봄을 만끽하다. | 이서우
- 24 디카찰락 | 봄이 왔네, 봄이 와
- 26 테마기행 | 충청의 산_속리산 | 편집실
- 30 동호회 탐방 | 테니스회 | 김영로
- 35 동호회 소식
- 36 글마당 | · 사표를 갖고 다닌 사나이 | 김풍오
· 짧지 않은 3개월간의... | 최희성
· 사형의 줄업을 축하하며 | 김병국
· 휴대폰, 예절을 지켜야... | 신경희
· 고장 난 휴대폰과 서비스센터 | 김용재
- 44 故 한정택 부장을 떠나보내고 나서
- 47 생각하는 글 | 준비 땅!

왜 孝行이 百行之本인가!!



이완규 / 감사

因緣이라고 말하는 것은 父子之間의 緣이지 허튼 데다 緣을 대는 것은 아닌 것이요. 아버지, 할아버지, 祖上 떠나서는 緣이 없는 것이요. 祖上님들하고 계통이 서있는데 始祖부터 내려오는 그 핏줄 靈力이라는 건 핏줄로 내려오는 영 줄인데 그 영 줄이 끊어지면 죽는 것이요. 그계 영에 대한 인연인데 그 영에 대한 계통이 분명히 네 몸에 왔으니까, 네가 아버지 덕에 세상에 나온거야 그게 인연이고 그러기 때문에 네 마음속에 아버지·어머니를 위하는 마음이 지극하면 하늘(자연)이 감동 되는거야, 하늘은 자연인데 부처님을 위하는 마음은 하늘이 감동 안돼 同氣感應인데 너와 부처님은 同氣가 안돼요.

道는 자연인데 겨울이 돈을 많이 쓰면 봄이 된다? 그런 법은 없어요. 봄이 오면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봄이지 돈 안 써도 봄은 오기 마련이요. 봄에 돈 안 써도 여름 오면 초목이 크는 거고, 꽃이 뭐 돈 쓰고 꽃이 피나? 道라는 건 천지간에 거짓이 없는 건데 돈이란 거짓인데, 남을 이용하지 않으면 오지 않는 것이 돈인데 내가 노력해서 돈 번다 해도 노력의 상대가 있어야 돈이 오는 거지 그래서 노력도 댓가를 보고 해야 하는 건데 도라는 것은 댓가 없는 것이요, 댓가가 없는 것을 하는 것이 도 닦는 건데 그 값이란 정한 거 없고 100일이다 1000일이다 날짜 정하는 거 없는 것이 도인데 거기서 댓가를 생각하면 사이비 되고 마는 것이요.

우주(自然)의 生成原理는 처음에는 물인데 宇宙空間에서 찬 氣運이 어디 가서 모이면 어디 가서 모이든, 찬 기운이 모이면 결국 물이 생기고, 물이 생기면 고체가 얼음이고 얼음이 생기면 얼음 속에서 불이 생기는 것이 自然의 原理(冷極發熱) 물(水)에서 불(火)이 오는 것이 자연인데 循環無端 金生水 水生木 木生火 火生



土 이 자연 속에서 우리가 사는데 이 自然의 原理 하나 하나를 알아 나가는 것이 道 닦는 것인지 學術을 道 學이고 道 닦는 것이 산속에서 가만히 혼자 앉아서 망상에 빠지는 것은 미쳐서 그러는 것인지 道 아니요, 사 람은 사람의 道를 따라 살아야지 처자식 부모 봉양은 안하고 저 혼자 道 닦아서 뭐 되겠다면 그건 벌써 틀린 것이요. 그런 건 최고에 가면 사이비가 되어서 저보다 못한 것들 훑아먹고 괴롭히는 중생 되고 말아요. 자연 속엔 거짓이 없는데 자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생물세계가 있는 건 자연이 살아서 循環無端 연속돼서 우리가 사는 건데 자연을 벗어나면 죽게 돼있어요.

사람이 자연의 그 힘으로 사는 건데 자연엔 거짓이 없는데 사람이 자꾸 거짓말한다. 그럼 오래갈까? 돈 갖 다 바치면 도가 높아지고 돈 내고 천도하면 극락 가고 돈 내고 기도하면 천국 가고 저 무슨 그런 거 있을 수 없어요. 빌면 된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사람들은 다 버려두고 저만 빌면 된다. 기도란 건 비는 것이지요 도 와 달라고 하늘님께 빌고 부처님한테 빌고 스스로 힘을 길러 제 힘으로 뭘 이를 생각 안하고 남한테 빌어서 거 뭐 이루어질까요

힘을 다해서 빌어 먹이다가 나라가 위란에 처하면 부모처자를 지키는 게 사람의 도리 아니요. 人生에 三樂 이 있는데 부모·처·자식과 함께 사는 것이 人生三樂인 것이요.

성철스님의 열반송을 부기하며...

平生欺誑男女群 彌天罪業過須彌 活陷阿鼻恨萬端 一輪吐紅掛碧山

(평생 남녀 무리를 속였으니 하늘에 넘치는 죄업이 수미산을 지나친다.

산 채로 무간 지옥에 떨어지니 한이 만 갈래나 되는데, 동그라미 하나 붉음을 토하며 푸른 산에 걸렸구나)



‘2005 산업안전경영대상’ 대상 수상

우리 회사는 4월 1일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한 ‘산업안전경영대상’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였다. 산업안전경영대상은 고도성장 경제의 그림자로 인식되던 ‘산업안전’이 중요한 경영 요소로 떠오르면서 ‘안전=경쟁력’이라는 인식이 퍼짐에 따라 생산 및 소비활동에서 발생될 수 있는 재해로부터 근로자 및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학계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심사위원회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모범적으로 구축한 뒤 이를 잘 운영하는 기업과 제품을 선정하였으며, 심사기준은 기업부문에 대해 안전보건 전략에 200점, 계획 및 운영에 400점, 시정조치 200점, 재해율 200점의 배점으로 심사를 벌였다. 수상업체들은 안전보건을 일상 경영활동으로 보고 철저한 계획과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 회사는 기업 제조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원자력 안전마크 획득 지난해 '무재해 9배' 달성

한전원자력연료(대표 양창국)는 지난 '82년 설립된 정부 재투자기업이다. 핵연료를 설계하고 제조하며 핵연료 부품을 가공하는 등 핵연료 관련사업을 수행하는 국내에서 유일무이한 기업이다.

핵연료는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기 위해 필요한 연료다. 여기서 생산되는 우라늄 1g은 석유 9드럼, 석탄 3t에 해당하는 열 에너지를 낸다.

이들테면 어른의 새끼 손톱만한 크기의 핵연료 소결체 1개를 생산할 경우 이 핵연료는 약 1천 6백kWh의 전력량, 즉 우리나라 1가구가 8개월간 쓸 수 있는 전력량을 만들어 낸다. 경수로용 핵연료 다발 1개의 경우 1억 7천 만kWh를 생산, 약 6만 가구가 1년간 쓸 수 있다. 핵연료는 연료비가 저렴해 경제적이며 화력 등 다른 화석연료에 비해 환경오염이 적은 친환경에너지이다.

한전원자력연료는 '89년부터 경수로 핵연료를 생산하기 시작,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핵연료 설계 및 제조기술의 국산화에 성공했다.

이 회사는 지금 경수로 및 중수로 연료를 각각 연간 400MTU(우라늄) 생산하고 있다. 여기서 생산된 핵연료는 고리, 영광, 울진 등 15기의 경수로와 4기의 월성 중수로 원자력발전소에 공급되고 있다. 한전원자력연료가 공급하는 핵연료를 통해 생산된 전력량은 국내 총 전력발전량의 4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 회사는 고품질 개량연료를 개발하기 위해 꾸준히 연구하고 있다. 지난 2002년 기존 핵연료에 비해 성능이 탁월하고 안전한 개량연료 'PLUS7™'을 개발했으며, 고리 1~5기 등 '웨스팅하우스'형 발전소용 개량연료인 'ACE7™'을 2004년 개발했다. 현재 원자로 내 성능시험 중인 개량 핵연료는 내년과 2008년께 상용화해 발전소에 공급할 계획이다.

한전원자력연료는 아울러 2015년까지 세계 핵연료 기술



을 선도하는 '글로벌 톱 3' 핵연료 제조회사가 된다는 목표 아래 독점적 기술소유권이 확보된 설계코드 개발과 수출주도형 차세대 핵연료 및 제조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품질개선활동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이 회사는 매월 과학기술부와 합동으로 '원자력 안전 점검의 날'과 '산업안전 점검의 날'을 지정,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사적 생산관리활동(TPM)을 추진해 안전한 생산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한전원자력연료는 산업안전보건경영체제인 'KOSHA18001' 인증과 과학기술부 선정 제1회 원자력안전 마크를 각각 획득하였으며 지난해 '무재해 9배' 목표를 달성했다. 또 2001년부터 4년 연속으로 국가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에 선정되는 등 안전 및 품질경영 분야에서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양창국 한전원자력연료 대표는 "앞으로 건설될 원자력발전소는 물론 북한에 건설 중인 KEDO 원전에도 핵연료를 공급할 방침"이라며 "원자력 에너지 자립의 기수라는 기업이념 아래 원자력 주기기술 완성을 통해 부존자원이 빈약한 국가 에너지 산업의 자립을 일궈낼 것"이라고 말했다.



느림과 음의 자세

‘전국을 하루권으로’ 라는 슬로건이 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전국을 반나절로 이어주는 ‘꿈의 철도’ KTX 고속철이 시속 300km로 내 달리며 시간을 단축시켜 놓았다. 앞으로 시베리아, 중국을 거쳐 유럽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새로운 현대 문명의 발달로 이어지는 삶의 편리함이 있지만 느린 것들이 푸대접 받고 있고 속도감 있는 것들이 추앙 받는 세상이 되었다는 씁쓸함이 있다.

어린 시절, 어느 겨울 완행 열차의 움직이는 소리에 박자를 맞추어 뽀얀 습기가 가득한 유리창에 피아노 건반을 그려놓고 즐겨 부르던 동요를 엉터리로 연주하면 ‘칙 칙 푹푹 칙 칙 푹푹’ 기차의 소리는 내 음악의 코러스가 되기도 하였다. 어느 시인은 ‘죽도록 그리우면 기차를 타라’ 고 했지만, 기차 창을 지나 스치는 계절감을 느끼게 해주던, 그리운 지나간 기억들을 이 빠른 고속철이 재현해줄 수는 없다. 속도의 가치를 중시하는 이 시대에 우리의 삶도 속도 경쟁에 휘말려 사람의 감정마저도 속도의 빠름 속에 묻혀 버리는 것이 아닐까?

Slow & Fast

요즘 선진국에서는 삶의 속도를 늦추어 삶을 제대로 인식하자는 식의 ‘다운 시프트족(Down Shift), 느림보 족’이 늘고 있다. ‘슬로우 푸드(Slow food)족’은 단 몇 분이면 완성되어지고 먹어 치워지는 ‘패스트 푸드(Fast food)’의 굴레에서 탈피하여 준비 과정부터 정성을 들이고 먹는 과정에서도 천천히 음식 본연의 맛을 음미하자는 것이다. ‘슬로우 라이프(Slow life)족’은 금전적인 수입과 사회적인 지위에 구속되지 않고 인생을 느긋하게 느끼고 즐기는데 삶의 의미를 두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우리 나라 대기업들은 2004 ~ 2008년까지의 소비의 한 형태로 ‘릴렉스(Relax)’를 규정하고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빨리 빨리’ 식의 우리 삶의 양식에도 느림의 추억과 그리움이 천천히 재인식 되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온고지신(溫古知新)이라 했던가, 우리의 전통 예절을 보면 느림의 미학이 그대로 나타난다. 인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음(揖)하는 자세가 나온다. 이 의미는 인사 받는 사람에게 인사를 받을 마음의 준비와 자세를 고쳐 잡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드리는 것이고 인사하는 사람은 최대한 존경과 예를 갖추어서 여유 있는 인사를 드리자는 것이다. 음(揖)의 자세는 천(天)음, 인(人)음, 지(地)음이 있고 천음의 자세는 큰절을 올릴 때 이마에 두 손을 얹고 잠시 서 있는 순간을 말하며, 인음은 인사를 드릴 때 잠깐 고개를 숙인 채 머무르고 있는 순간을 말하며, 지음은 인사가 끝난 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잠깐 서 있는 순간을 말한다. 이 세 가지 음의 자세는 현대 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 직장 내의 중요한 예절로 응용될 수 있다.

Down Shift

Slow food

Slow life

Relax



권정리
태평양교육센터 수석강사

느림의 미학, 읊

현대 문명이 만들어 놓은 이 초고속의 시대에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감정의 시발은 인사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인사를 외면하고 산다면 모두 이 속도의 시대에 이끌려 하나의 로봇과 같이 기계화되어 간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인사란 상대를 알고 싶어하고 나를 알려 주는, 감성이 우선하는 인간의 기본이다. 이에 적절한 읊을 가미하여 실천하였으면 한다.

읊의 자세는 인사 속의 느림의 미학이다. 읊의 시점은 인사를 하기 전 눈맞춤(eye contact), 숙임의 상태, 인사를 마무리하는 눈 맞춤이 이러한 읊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순간을 잘 활용하면 인간관계의 시작인 정중한 인사를 할 수가 있다. 느린 속도로 상대에게 인사를 하며 상대를 한 번 더 인식해 보는 것, 이것이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해 주는 첫 관문이 될 것이다. 느림의 미학을 인사로부터 실천해 보자.

천 읊



인 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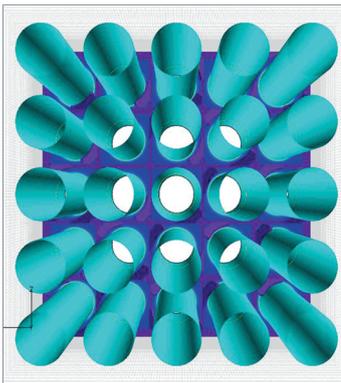
지 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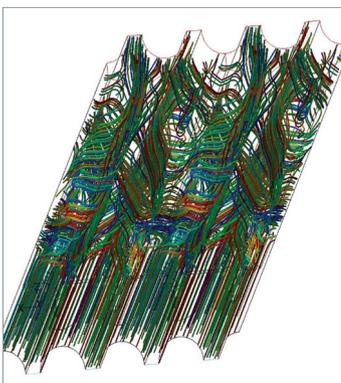
임계 열속 상관식 개발



황 순 택
안전해석처 열수력설계실장



온도분포



flowpathline



임계 열속 상관식(Critical Heat Flux Correlation)이란?

임계란 원자력분야에서 흔히 쓰이고 있는 용어로서 물리적 현상의 파국이나 극적인 전환이 유발되는 시발점을 의미한다. 원자로심에서 생성되는 중성자수의 비율이 소모되는 양보다 크게 되어 노심 출력이 점차 상승하게 되는 시점을 '임계'에 도달했다고 말하며, 노심 열수력 설계 분야에서는 운전 중인 연료봉이 과열로 인하여 손상되기 시작하는 연료봉 표면의 열발생률을 '임계 열속' (critical heat flux)이라고 한다.

임계 열속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에서는 임계 열속 징후가 발생하면 즉각 전원을 차단하여 열을 식히게 되는데 시험이 끝난 후 시험편(test section)을 확인해 보면 수증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 부분이 검게 타버린 것을 볼 수 있다. 만일 전원 차단이 조금이라도 지체된다면 녹아서 시험편이 파열될 수 있다. 실제 운전 중인 원자로심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된다면 발생 연료봉의 파손은 물론 주변 연료봉으로 점진적인 파손이 이어지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임계 열속은 노심 내 냉각재의 온도, 압력 및 유량 등의 조건에 따라 매우 다양한 변화 행태를 가지고 있는데, 계측기를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는 값이 아니므로 예측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임계 열속 예측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많은 연구기관과 기업에서 오랜 기간을 거쳐 연구되어 왔다.

그 중 임계 열속 상관식을 이용하는 방식이 원자로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가장 신뢰가 높고 정확한 예측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임계 열속 상관식은 원자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운전조건에서 임계 열속을 인위적으로 발생시키면서 많은 자료를 취득하여 냉각재 조건과의 상관 관계를 밝혀냄으로써 개발된 경험식이다. 시험을 위해 사용되는 시험편은 개발될 상관식을 사용하게 될 연료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5X5 또는 6X6의 봉 배열 형태로 핵연료 집합체(실제 원자로심에 장전되는 것은 16X16 또는 17X17봉 배열을 가짐)를 축소시켜 제작한 것이다.

임계 열속 상관식 개발 기술 습득

웨스팅하우스와 같은 원자력 선진 기업들은 이미 1970년대부터 봉 다발 형태의 집합체의 임계 열속을 예측할 수 있는 임계 열속 상관식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후발 주자인 우리 회사는 1993년에 노심설계를 시작하였으며, 웨스팅하우스의 WRB-2 및 CE-1 상관식의 국내 인허가 과정에서 상관식 개발을 위한 기본 기술을 습득하였다.

1999년에 시작된 한국표준형 원전용 개량연료인 PLUS7™의 개발 과정에서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실험 시설에서 수행된 임계 열속 시험에 처음으로 참여하였고 웨스팅하우스와 공동으로 KCE-1 임계 열속 상관식을 개발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2002년부터 웨스팅하우스형 원전용 개량 연료인 ACE7™의 개발이 이어졌으며 역시 웨스팅하우스와 공동으로 16X16형 및 17X17형의 두 가지 집합체를 함께 개발하면서 다양한 임계 열속 시험에 참여할 수 있었다.

임계 열속 시험은 고온 고압과 빠른 유속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봉 다발 시험편은 특별히 제작된 시험용기 내에 넣어지고, 여기에 압력, 온도 및 유량의 급격한 변동을 유발시켜 가며 실시하게 되므로 위험도 따르는 한편, 시험편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일정에 맞추어 요구된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기술과 유기적인 협력이 요구되는 고난도의 시험이다.

임계 열속 상관식 독자 개발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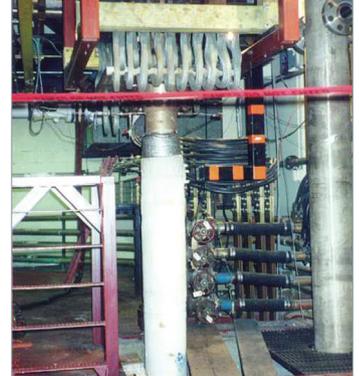
새로운 연료를 개발할 때에는 그 연료의 특성에 맞는 임계 열속 상관식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임계 열속 상관식 개발 기술은 부수로(subchannel) 해석코드와 함께 노심 열설계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기술력의 척도이다.

그러나 해외 원자력 선진 기업들은 임계 열속 상관식 개발 기술의 전수에 매우 인색하며, 자사의 기술보호 차원에서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따라서 노심 열수력 설계 기술 자립을 위한 오랜 숙원이었던 임계 열속 상관식을 독자 개발할 수 있는 기술 확립의 기회를 모색해 오다 작년부턴 산업자원부 원전 기술 고도화 사업으로 과제화를 추진하여 마침내 'PLUS7™ 및 ACE7™ 연료용 최적 임계 열속 상관식 개발' 과제를 3년 계획으로 올 3월부터 착수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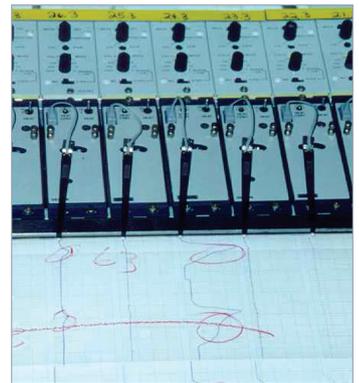
PLUS7™연료의 열적 설계에 사용될 KCE-1 상관식은 임계 열속 상관식과 함께 결합되어 임계 열속 예측에 사용되는 '비균일 축방향 출력분포 보정인자'의 최적화를 통해 개선의 여지를 찾을 수 있고 또한 ACE7 연료 역시 사용 예정으로 있는 임계 열속 상관식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추가 여유도 확보가 가능하다.

이와 같이 우리 회사에서 개발하는 개량 연료들에 사용될 임계 열속 상관식의 개선 요구와 상관식 개발기술 확립의 필요성이 동시에 반영되어 본 과제는 상기 두 가지 목적을 충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열수력설계실에서는 본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오랜 해외 원자력 선진 기업의 기술 의존을 탈피하고 노심 열수력 설계기술 자립을 위한 힘찬 전진을 하고자 한다.



test section



data measurement



경주, 또 다른 천년의 역사를 만나다



신라 천년의 찬란한 고도 경주, 문화와 역사의 도시 경주는 유명한 유적들이 많아 열거하기가 벅찰 정도이다. 불국사와 석굴암, 첨성대와 천마총 등등 우리 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가본 곳이 경주이다.

인구 28만 명의 경주시는 문화재뿐만 아니라 양남면 나يار리에 있는 월성원자력발전소로 우리에게도 귀에 익다. 원전수거물센터 유치와 관련하여 새롭게 떠오르는 경주를 찾아 우리에게 비교적 덜 알려져 있지만 경주 사람들이 추천하는 가볼 만한 곳을 소개한다.

- 편집자 주

▲ 문무왕릉이 내려다 보이는 이견대와 월성원자력발전소

처음 알게 된 일이지만, 세계적으로 한 나라의 도읍을 천년이나 한 곳은 경주와 로마, 단 두 곳이라고 한다. 그래서인지 경주 시민들은 삼국통일과 아울러 천년 고도에 대해서 긍지가 대단하다. 여기에 676년 삼국통일의 대업을 달성하고 죽어서까지 나라를 지키겠다고 월성 앞바다의 수중릉에 잠든 문무왕이야말로 신라와 경주를 영원하게 만든 인물인지도 모른다.

문무왕릉과 이견대, 감은사지

일명 대왕암(大王岩)이라 불리는 문무왕릉은 21년간 재위하는 동안 668년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676년에는 삼국의 영토에 야심을 드러낸 당나라 세력을 한반도에서 축출하여 삼국통일의 위업을 완수한 신라 문무대왕의 수중릉(水中陵)이다. 대왕암이 화장한 문무대왕의 유골을 뿌린 산골처(散骨處)라는 이설(異說)도 있지만, 이 곳은 죽어서도 나라를 지키겠다는 문무대왕의 숭고한 호국정신이 깃들어 있는 곳이며, 이러한 수중왕릉(水中王陵)은 세계(世界)에서도 유례가 없는 특이한 것이다. 갈매기떼들이



▲ 골굴사, 문무왕릉



▲ 기림사, 옥산서원, 독락당

모여 있는 문무왕릉 앞에는 용왕이나 문무왕께 치성을 드리는 무속인들이 매일 찾아온다.

감포방면으로 가다 문무왕릉이 보이는 오른편 언덕에 자리잡은 이견대는 관심을 갖지 않으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곳이다. 『삼국유사』의 기록에 의하면 신문왕은 호국용이 된 부왕 문무왕을 위하여 감은사를 축조하였고 이견대는 신문왕이 바다에 나타난 용을 보고 나라에 크게 이익을 얻었다는 곳이며, 용으로부터 세상을 구하고 평화롭게 할 수 있는 옥대와 만파식적이라는 피리를 하나 받았다는 전설도 여기서 비롯되었다. 그 뒤 대왕암이 잘 보이는 곳에 이견대를 짓고 역대 왕들이 문무왕릉을 참배하였다.

감은사는 문무왕이 삼국을 통일한 후 왜구의 침략을 막고자 세우기 시작하여 아들인 신문왕 때 완성됐다. 죽어서도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는 문무왕의 유언에 따라 대왕암에 장사를 지낸 뒤, 용이된 부왕이 드나들 수 있도록 금당 밑을 특이한 구조로 만들었다고 한다. 현재는 그 터와 웅장한 3층 석탑 두개만 볼 수 있다. 감은사지, 문무왕릉, 이견대는 모두 차로 5분 거리 내에 있다.

기림사와 석굴 사원 골굴사

기림사는 신라 초기 인도의 광유성인이 창건, 한때 임정사라고도 불렸다. 그 이후 신라 선덕여왕 때 원효에 의해 기림사로 개칭되었다. 조선시대에는 불국사를 비롯한 60여 개의 말사를 감리한 거찰이었다고 한다. 더구나 왜구가 동해를 거쳐 서라벌로 침입하는 길목에 놓여 호국사찰의 구실도 했다고 한다. 약사전의 목재에는 역사가 고스란히 묻어 있고, 삼천불전에는 삼천개의 불상이 놓여 있다.

골굴사는 불국사보다 약 200년 먼저 창건된 사찰로 인도의 아잔타 석굴, 티베트의 돈황처럼 여러 개의 동굴군으로 형성된 우리 나라 유일의 석굴사원이다. 골굴사는 신라시대 화랑들이 수련하던 심신 수행법인 선무도의 총본산으로 현재도 선무도를 전승, 보급하고 있다.

옥산서원과 독락당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에 자리잡은 옥산서원은 조선 중종 때의 성리학자로서 '조선 5현'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유학자 한훤당 김굉필, 일두 정여창, 정암 조광조, 회재 이언적, 퇴계 이황)의 하나로 추앙 받고 있는 회재 이언적(李彦迪, 1491~1553년)의 덕행과 학문을 기리고 후학을 교육하기 위해 조선 선조 5년에 설립되었으며, 그 이듬해에 임금이 서원이름을 하사하였다.

이언적은 24세에 문과에 급제한 후 벼슬에 나갔으나 중종 25년(1530) 김안로의 등용을 반대하다 관직에서 물러나 성리학 연구에 전념했다. 1537년 다시 벼슬길에 오른 후 1545년 좌찬성에 이르렀으나 양재역 벽서사건에 연루되어 유배되었다. 주희(朱熹)의 주리론(主理論)을 정통화 하는데 선구적 역할을 했으며 그의 사상은 퇴계 이황에게 이어져 영남학파(嶺南學派) 성리설(性理說)의 선구가 됐다. '구인록', '중용구경연의', '봉선잡의' 등의 저술을 남겼다.

독락당(獨樂堂)은 옥산서원에서 서북쪽으로 7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이언적의 별장이자 서재로, 이언적이 1532년 벼슬에서 물러난 후 이 곳에서 6년 간 학문에 전념하였으며 경내에는 사묘, 어서각(御書閣), 양진암(養眞庵), 계정(溪亭)이 있다. 현재는 후손이 살고 있으며, 하늘에서 보면 여덟팔자(八)자의 특이한 주택구조를 하고 있어서 건축 관계자들이 많이 찾는다고 한다.

옥산서원과 독락당을 잇는 계곡에는 항상 물이 넘치고 경치가 좋아 여름철이나 단풍이 곱게 드는 가을철에는 인근은 물론 멀리에서도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다. (글·사진/이종무)

도둑전기(盜電) 쓰던 시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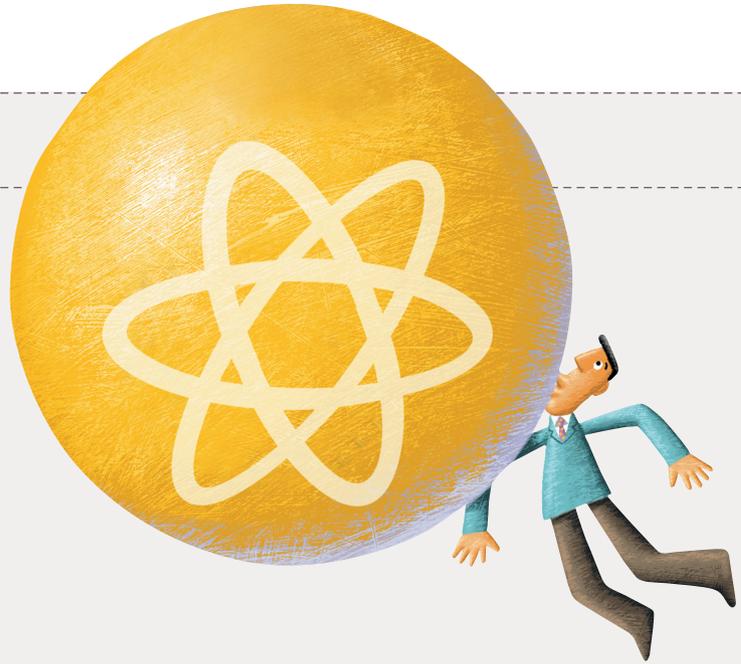


방 지 혁
경영지원본부장

전기가 부족하여 허가 받은 등수를 넘으면 벌금이 부과되고, 옆집에서 어찌다가 전열기라도 한번 쓰게 되면 주변의 여러 집에서 백열전구가 희멸건 해지던 시절이 있었다. 그나마 어려운 가정에서는 대나무 끝에 갈고리를 만들어 밤에만 진봇대 사이에 있는 전선줄에 슬쩍 걸어 놓고 작은 나무 토막에 못을 3개 박아서 만든 간이 전구를 연결하여 잠깐씩 사용하기도(어떻게 보면 보석 같은 대우?)했다. 그러다가 마을에 수상한 사람(지금 생각해보면 한전에서 나온 도둑전기 단속반)이 나타나면 온 동네 사람들이 서로서로 사발통문을 놓고 이 집 저 집에서 부라부라 2개의 대나무 갈고리와 전깃줄을 돌돌 말아서 마루 밑에 깊숙이 숨겨놓느라 난리법석을 떨던 시절이 그리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다.

요즘에는 정전이니 제한 송전이니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중화학공업의 육성과 자본재의 수입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2~1976 철강, 수송용 기계, 전자공업, 조선공업 등 중공업이 성장산업으로 등장) 수립 시행 이후 지속적인 경제개발에 따라 전력수요는 급속히 증가하였고 한전에서는 모자라는 전기를 급히 충당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덩치가 큰 디젤 발전기를 통째로 들여다 준공일자를 하루라도 단축하기 위해서 철야 돌관작업을 일상업무처럼 하던 때가 있었다. 그 시절 필자도 군산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근무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런데 원자력발전소의 안정적 전력생산으로 1998년에는 그 당시 도입했던 발전설비를 해체하고 포장해서 미국에 되돌려(매각) 보냈다. 게다가 전남 화순과 충북 단양의 탄광촌에서 채굴된 것을 공급 받아 하루 약 400톤 정도의 무연탄을 소비해오던 기존의 석탄(무연탄+벙커C유)화력조차도 지난해에는 아예 폐쇄하여 발전소 자체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국내 에너지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 나라는 1977년 전력분야에서 석유의존도가 사상 최고인 89%를 상회하였다. 그러다가 1978년 4월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래 덩치 큰 대용량 원자력발전소에서 단계적으로 안정적인 전기공급이 개시되면서 겨우 숨을 고르



기 시작했다.

그래도 우리는 쉬지 않았다. 그 동안 전량 외국에서 수입해오던 원자력발전소 소요 핵연료를 국내에서 기술 자립, 1989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생산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외국에서는 이미 한물간 지나간 옛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핵연료가 위험하다, 아니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수많은 전문가들이(어디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숨어 계시다가 갑자기 나타났는지) 글 쓰고 논쟁하고 하면서 여러 해를 허송세월 했던 기억이 있다. 돌아보면 오히려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고 어쩌면 많은 훌륭한 분들은 그 시절 잘못 이해하고 말했던 부분들을 후회하고 계실지도 모른다.

문득 어느 경제학자가 얘기하던 한 마디가 새로워진다. IMF환란이 도래하기 전에 '우리 경제는 Infra가 튼튼하기 때문에 절대로 IMF환란은 일어 나지 않을 것이며, 우리 경제를 동남아국가와 비교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 라고 자신 있게 우리 나라 경제구조에 대한 강의를 하고 다녔는데 지금은 경제학자로서 그 시절 IMF환란에 대한 사전 예측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뼈저린 후회를 한다고 말씀하신 분이다. 필자는 오히려 이 분을 오히려 훌륭한 경제학자라고 믿고 있다. 왜냐하면 학문적인 경지보다는 그 위에 이미 올라 서계신 분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핵연료 국산화사업에 깊숙이 참여하면서 초기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있다. 핵연료냐? 원자 연료냐? 아니면 원전 연료냐? 원자력 연료냐? 핵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많은 분들이 많은 말씀을 하시면서 많은 시간을 소모하던(낭비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 동안에 결국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외국과 경쟁하여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몇 번의 기회를 뺏히 쳐다보면서 지나가야만 했다.

지금도 어쩌면 알면서도 일부러 그러는지 모를 정도로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다. 방사성 폐기물이나?, 원전 수거물이나? 아니면 재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에너지 자원이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홍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더 중요한 것을 다 알면서도 말이다.

과학적으로 믿음이 가면 계속 감시를 하더라도 국가 사업에서 낭비는 하지 말아야 한다.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은 우리가 원자력에너지를 이용함으로써 많은 혜택을 얻는데 따르는 최소한의 부담이며 오히려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다. 이제 감성적인 부분은 다소 누그러뜨리고 우리 모두의 실익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 줄 때가 왔다. 오히려 지금은 국력을 집결하여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해야 될 때이다.

고향 친구들에게



신 중 철
연료서비스실 수리기술역

그간 잘 지내셨는가?

이번 설날 찾은 고향은 이전과 다르게 너무 낯설은 느낌이었네. 돌아와서도 서운한 마음이 씻기지 않아 펜을 잡아본다.

자네들과 만나면 으레 원자력 이야기가 화두였고, 원자력이 우리 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부터 시작하여 ‘핵 폭탄’은 어떤 것이고 ‘원자력발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마치 내가 이 나라 원자력을 모두 짊어지고 있는 양, 이야기 나누곤 했는데, 거리 곳곳을 가로지르며 나무끼는 ‘원자력 반대’ 현수막 물결 아래에서 서로의 안부만 나눈 것 같구나. 마스크를 통해 태권도공원 최종 경합에서 경주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섭섭했는데, 그 분풀이가 ‘핵발전소도 가져가라’라고까지 번질 줄은 생각 못했다.

친구야, 내가 여기서 아무리 원자력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라고 근거자료를 제시해 봐야 그쪽 사람이니까 하는 소리로 밖에 안 들릴 것 같으니 우리 서로 40여년 지기의 죽마고우 입장에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물론 원자력보다 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도 있다. 풍력이 그러하고 또 태양에너지도 충분한 자원이 될 수 있지. 그래서 정부 및 원자력계에서도 이러한 청정에너지가 원자력을 일부 대신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원자력으로 얻은 경제적 효과를 이 분야에 투자하고 또한, 공동 연구를 하고 있다네. 그런데 현재의 기술로는 우리 생활에 필요한 양 만큼의 전기를 얻을 수 있는 에너지원이 못되어, 계속적인 연구와 어느 정도의 세월이 요구되는 분야네.

또 세계는 미래 에너지원으로 가능성이 높은 핵융합발전을 위하여 프랑스 남동부에 위치한 카다라슈 원자력센터에서 공동으로 핵융합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제 핵융합실험로를 건설할 단계까지 와 있는데, 각 나라에서 자기네 나라에 짓겠다고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네. 물론 우리 나라도 회원국이지만 방사성 폐기물처분장 부지 하나 선정 못하고 있는데, 핵융합실험로를 유지하겠다 할 위신도 없네만, 가까운 일본은 지자체 단체장들이 나서서 ‘룻카쇼무라’ 지역이 최적지라며 외국인 기술자를 위한 ‘국제학교’ 건립 및 공항과 직결되는 신도로 건설 등의 옵션까지 제시하면서 로비하고 다닌다네. 마치 올림픽을 유치하는 풍경이라고 하면 딱 맞겠다.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프랑스에

親

舊

서는 지금까지 이 곳에서 연구활동을 했는데 일본에 넘어 갈지 모른다는 팽팽한 긴장감을 갖고서 원자력산업을 지키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네. 최근에는 이 센터 내에 방사성 폐기물처분장을 건설한다는 프랑스 정부 발표도 있었다.

우리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처분장 부지 하나 선정 못하고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지역 이기주의로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바깥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네. 그들이 우리 국민 만큼 ‘핵’을 몰라서 이러겠니? 이와 같은 원자력 시설들이 뿌리는 엄청난 경제적 효과 때문이 아니겠니. 우리의 자녀 아니 그 후손까지 잘 살수 있는 돈이 굴러오기 때문 이지. 혹, 친구가 “핵을 볼모로 돈만 챙기면 되느냐고?” 물을지 모르겠는데, ‘핵’은 관리만 잘되면 전혀 위험한 물질이 아니네. 나는 눈만 뜨면 핵과 함께 산다. 우라늄이라는 핵물질을 이용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연료가 되는 원자력연료를 만드는 회사에서 일하다 보니 당연할 수밖에. 친구들도 보다시피 내가 그리 약하나, 뿐만 아니라 발전소에 근무하는 다른 친구들도 그렇고, 월성발전소 바로 근접지로 시집가서 아들, 딸 낳고 잘 사는 여자 동기들도 있지 않은가. 친구들이 알고 반핵 단체에서 주장하는 것들에는 너무 과장된 내용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 주었으면 좋겠네. 원자력이 그렇게 불안하다면 그보다 더 안전한 것은 무엇이 있는데? 매일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정말 안전한가? 그렇다고 걸어 다니면 더 안전한가? 기차도 비행기도 다 불안정한 요소가 있지만 기술로써 그것을 최소화 시키면서 문명 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나. 그리고 사고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과 사고 발생시 즉각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확보되어 있으면, 안전한 것으로 인정해 주어야 기술이 발전하고 나라가 부유해질 수 있는 것 아닌가.

방사성 폐기물처분장도 그러하고 발전소 신규 건설도 현 계획대로 추진 안되면 할 수 없이 비싼 석유를 수입해야 되니 경제는 더욱 나빠질 것 이고, 화석연료를 더 많이 태우면 대기 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전기마저 부족하여 산업 경제는 뒷걸음질 칠 것인데, 앞만 보고 달려도 현상 유지가 어려운 국제경쟁시대에 거꾸로 가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나. 자원이 풍부한 중국도 원자력을 선택하여 2020년까지 16개 발전소를 신규 건설한다는 발표를 하여 세계 각국에서 중국 시장을 노리고 있는데, 세계 4위의 원자력 기술을 보유한 우리 나라가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가장 여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반핵에 부닥쳐 세계 시장 진출도 어려워 지고 있는 실정이니, 이 또한 막대한 국가적 손실 아닌가?

나는 늘 생각해 왔네. 그나마, 내 고향 경주에 원자력발전소가 있고 또 신규 발전소를 추가로 건립한다는 계획이 있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냐고. 앞서 일본의 경우와 같이 우리도 원자력의 안전성을 바로 알고 지역 경제와 나라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근간에 대구 포항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경주가 더욱 썰렁해져 간다고 그랬는데, 이제 사실을 알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접근하여 부자 경주를 만드는데 우리 원자력이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빌어본다. 나의 작은 도움이라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달려 감세.

4월 중순, 어머니 기자사 때 내려가면 한 번 만나서 얘기를 나눠 보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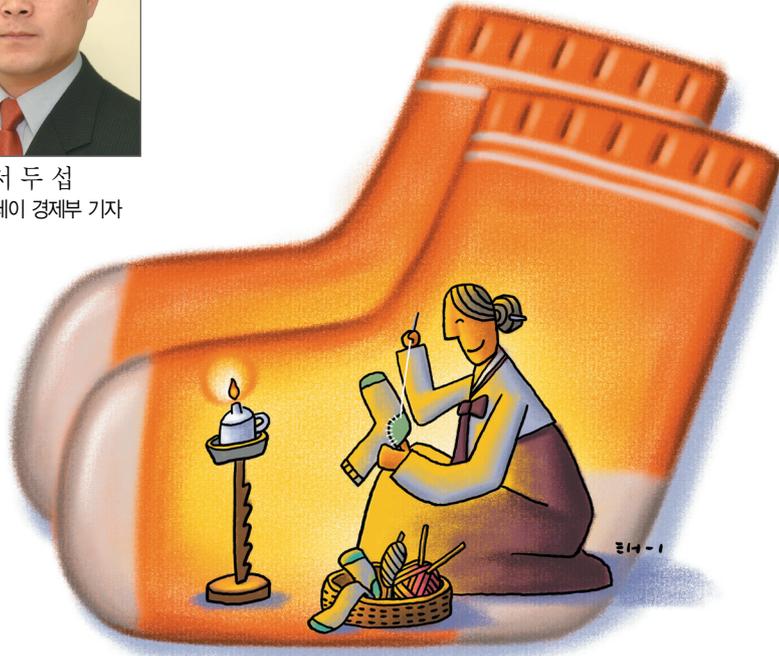
늘 건강히 잘 있게.

대전에서 친구 중철 보냄

전기와
마술쇼



서두섭
충청투데이 경제부 기자



눈부신 경제발전과 함께 전기,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도 급속히 확충되던 1980년대, 풍족하지는 않지만 시골도 220v 전기 사용을 일반적인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며 TV, 냉장고와 같은 가전제품이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 주기 시작했다.

다만 시골이라는 핑계 때문이었을까, 전기가 부족하던 시절에 대한 기억 때문이었을까? 우리 어머니들의 뇌리에는 아껴쓰며 단전시 어둠을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깊이 박혀 있었다. 그래서인지 시골은 집집마다 양초가 신주단지처럼 여겨지며 방구석 한 쪽을 차지했다. 동네 구판장 진열대에서 눈에 가장 먼저 띄었던 것도 양초였다. 전기에 대한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는 마을 개구쟁이들은 양초의 필요성을 가끔 각인시켜 주기도 했다.

초등학교 2학년쯤으로 기억한다. 옆집 형이 껌 종이로 마술을 보여준다면 어리숙한 추종자의 손을 이끌었다. 없던 것도 만들어내던 형은 우리의 절대자였고 때문에 그의 명령이라면 마다할 수도 없었다. 그 날은 마다할 이유도 없는 선물 같은 마술을 보여 준다가에 흔쾌히 그의 뒤를 따랐다.

발길이 멈춰진 곳은 안방 문 앞에 놓여진 콘센트. 형은 껌 종이를 납작하게 접어 들어갔다. 그리곤 콘센트 양쪽 주둥이에 이를 살짝 걸쳐 놓더니 연필 꿈무니로 살짝 치라는 것이다. 이후 벌어질 일을 예측할 수 없었던 맹종자는 즐거운 표정을 지으며 그의 명령을 즉각 실행으로 옮겼다.

마술은 순간의 섬광과 약간의 연기가 전부였다. 대신 농사일을 마치고 돌아오신 아버지는 순간의 유

혹을 뿌리뽑기 위한 불호령을 내리셨다. 물론 초저녁 어둠을 양 초가 물리치는 동안 아버지는 전기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가르치듯 말없이 두꺼비집 퓨즈를 교체하셨다.

며칠 후 똑같은 마술 쇼가 길 건너 또래의 집에서도 펼쳐졌던 것으로 추측된다. 해거름이 한참 지난 시간, 또래 맹종자를 질책하시는 그의 아버지 호령소리가 집까지 들려왔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불호령에 주눅 든 또 다른 맹종자가 침통한 표정을 하고선 양초를 빌리기 위해 집을 찾아왔다.

그와 잠깐 마주친 눈빛에서는 마술 쇼를 통해 벌어진 일에 대한 호기심과 함께 이를 보여줬던 형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다. 이후 형이 말하던 마술 쇼가 어떻게 발생하게 됐는지는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터득하게 됐다.

형에 대한 원망 못지 않게 마술 쇼의 근원적 발생원인을 파헤치던 높은 결국 전기 관련 학문을 더 공부했고 직업도 전기설비 쪽으로 결정했다.

어떻게 보면 당시 이런 짝막했던 에피소드가 전기의 필요성과 중요성으로 연결돼 인생의 진로까지 결정되었던 게 아닐까 싶다. 또 맹랑한 호기심을 질책하셨던 아버지의 불호령도 자연스레 알게 됐다.

허리끈을 졸라매던 시절, 아버지들은 잘사는 나라나 도심에서만 사용하던 전기가 촌구석에도 들어온다는 말에 며칠 밤을 설레임으로 지내셨단다. 통나무 전신주 세울 땅이 필요하다고 옥답한 가운데 자리도 선뜻 내어주셨다. 이와 관련해 부역이 필요하다면 농사일도 잠시 접고 기꺼운 팜방울을 보태셨다고 한다. 이렇게 들어온 전기였기에 당신들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보배로 여겨졌을 것이다.

맹종자가 장년으로 자라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사회도 더없이 빠른 발전의 대열에 들어서면서 예전에는 흔하던 모든 것이 매우 귀한 것으로 여겨진다. 물과 공기(환경)는 물론 전기와 같이 인류가 만들어낸 것들의 필요성과 소중함도 그만큼 깊어지고 있다.

물론 전기의 경우 일상생활의 사소한 부분부터 거대 산업에 이르기까지 많은 곳에 쓰이다 보니 이제는 전기를 당연한 듯 여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기를 몰스듯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

아졌고 최근의 고유가와 맞물려 에너지 절약을 요구하는 사회적 연대감도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발전과 함께 가장 아이러니한 모습은 전기를 둘러싼 남비적 현상이다.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하면서도 건강과 같은 실질적 이익을 위해서는 강하게 거절하고 있는 것이다. 그 옛날 아버지들이 전신주 세울 땅을 마다치 않고 내어주던 시절과 사뭇 달라진 점이다.

최근에는 전자파 유해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난날 세워진 집 앞 전신주를 옮겨달라는 요구에 한전 측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뿐인가? 수십 년째 담보 중인 원전 수거물(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은 아직도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해 표류하고 있다. 국가적 사업이고 필요성 및 시의성 등을 고려해도 곧 처리해야 하지만 찬성과 반대 측의 주장이 팽팽한 평행선을 그으며 예산만 쏟아 붓는 꼴이다.

이런 논란과 싸움이 거듭되면서 그 옛날 형의 마술 쇼에 호기심을 보였던 맹종자들 역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전기의 분명한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반대의 목소리에서 묻어 나오는 우려에 귀가 기울여지는 이유도 이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머리 속에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마술 쇼에 호기심을 보이던 어린 아들에게 아버지가 불호령으로 가르치셨던 전기의 필요성, 이를 소중히 여기시던 어머니의 손길. 이를 우리의 아들에게 가르치고 같은 맥락에서 이해시켜 나가는 것 또한 몫으로 남을 것이다. 또 우리의 후손들이 이 땅을 지키며 미래를 일궈나가고 인류가 더 나은 세계로 발전하는 이상 그 필요성도 자리를 매우며 일상의 필요부분이 될 것이다.



내 인생의 life & friend 동반자

기술기획부_류찬호 기술과장 부부



흔히 배우자를 일컬어 평생의 동반자라 한다. 인생에 있어 어떤 길을 택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길을 누구와 가느냐에 따라 행복의 모습과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그 길고 험한 동행에 있어서는 연애시절 달콤했던 사랑의 감정 말고도 다른 많은 것들이 첨가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꼼꼼하고 착한 심성이 마음에 들었어요.”

중매로 만났다는 류찬호, 이진안 씨 부부는 첫만남 이후 어떤 계기로 계속 만날 결심을 하게 되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였다. 울산 남자와 대전 처녀의 멀고 먼 데이트는 이렇듯 마음으로 끌린 것이었기에 3개월간의 짧은 데이트가 결혼으로 이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 선뎀만 아니라 소개팅이나 미팅 등 중매의 다양한 형태를 통해 사람 만나는 게 어렵지 않은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는 듣기 힘든 대답일지도 모른다. 그도 그럴 것이 시각적이고 감각적인 요즘 세상에서 사람보기의 잣대는 내면 보다는 외면에 치중하기가 쉽고, 사람보다는 조건에 눈을 돌리기가 부지기수니 말이다.

연인에서 부부까지

“데이트요? 연애결혼처럼 데이트 기간이 길지 않아서 남들처럼 많은 기억이 있지는 않지만 경복궁, 경주 쪽의 고궁에 많이 갔어요. 결혼하고서는 주말에 애들과 함께 등산도 하고, 도서관에 갔습니다.”

연애시절의 기억에 남는 데이트를 물어보니 ‘데이트’는 연애시절 아련한 그 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 되고 있었다. 도서관이라는 흔치 않은 데이트 코스에 자주 가는 이유를 물어보니 “애들 교육에도 좋고, 냉난방 시설이 좋아서 덥거나 추울 때 가면 좋아요.” 하고 농담 섞인 이유를 말해주었지만 그 안에서 항상 가족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이 부부가 사는 법

류찬호 과장과 이진안 씨는 결혼 21년의 부부이다.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는 게 누구나 공감하는 어려운 일임을 감안한다면 결혼 21년에는 수많은 사연과 사건들이 있었을 법도 하지만 데이트 내내 서로를 위하고, 칭찬하는데 여념 없었던 이 부부는 함께 산 21년 동안 단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다고 한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는 하나 실상은 얼음도 단번에 깨는 것이 부부싸움이고, 작은 부부싸움이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싸움이란 것은 작던 크던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기엔 안 할수록 좋은 일일 것이다.

21년 동안 단 한 번의 부부싸움이 없었다는 사실에 그 비결이 무엇인지 물어보니 "서로 인내심과 이해심이 많아 그런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아내와 "화 나는 일이 있어도 아내가 참아주고, 화나는 일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하는 편이라 싸울 일이 없어요"라는 남편의 대답을 듣고 있으니 굳이 말로 설명을 안 들어도 서로 칭찬



해주고 아껴주는 모습에서 금슬의 비결을 알 수 있었다.

살아가는 모습이 백인백색이듯, 사랑의 모습과 정의도 백인백색이 아닐까 한다. 그 속에 무슨 정답이 따로 있을까 싶지만 21년 동안 단 한 번의 다툼없이 서로를 아껴주고 사는 데에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라는 정답과 같은 지혜가 숨겨져 있었다.

마지막으로 빼놓지 않고 하시는 과장님의 아내 자랑이 있었으니, 단연 음식 솜씨였다. 오늘 저녁도 손수 만든 고추장, 된장을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했을 아내. 그리고 그 음식들을 배불리 먹었을 남편. 류찬호, 이진안 부부에게는 결혼 이후, 그 옛날 20대의 데이트와 달라진 게 있다면 아쉬운 이별 없이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저녁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아닐까. (글·사진/모혜진)

매화를 보며 봄을 만끽하다



▲ 온 마을을 하얗게 뒤덮은 매화마을 풍경

우리 가족만의 오붓한 여행을 한 번도 시도해 보지 못한 나로서는 1박 2일의 여행을 떠난다는 것이 어색하기만 하다.

여행의 목적지만 정해 놓고 출발하던 날, 아내는 식당이나 숙소의 예약은 끝났는지 재차 물어봤지만, 난 모른 척 행동을 잡고 앞만 바라보며 길을 재촉했다. 말로만 듣던 매화마을을 향해 우리는 길을 떠나게 됐다.

“결혼생활 10년이 지나고 보니까 앞으로 더 살아볼 가치가 있네!”라며 아내는 여행에 한껏 들떠 있는 것 같다. 내심 미안한 생각이 스친다. 하긴 내가 봐도 집사람에게 미안한 일을 많이 했던 것 같다. 큰 애 출산 후 퇴원하던 날 외박하고, 애 운다고 나 몰라라 하면서 다른 방에 가서 자고, 애들이랑 아내는 쳐다보지 않고 내 할 일만 하는 등 돌이켜 보면 많이 서운했을 일들만 기억 난다. 세월이 흘러 이 모든 빛을 갚을 날이 올까 싶지만, 살아가면서 조금씩 갚다 보면 그 날이 오리라 믿어 본다.

대진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중간에 산수유 축제가 열리는 전남 구례군의 지리산온천관광단지에서 들렀다. 축제가 개최되는 곳이면 으레 있기 마련인 먹거리, 볼거리 장터가 세워져 있고, 여기 저기에서 흘러 나오는 음악 소리는 여기에 장이 섰다는 도장을 꼭 눌러서 찍어 주고 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산수유 꽃은 피어 있지 않고, 봉오리만 입을 다문 채 꽃이 피길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참새가 어찌 그냥 지나

칠 수 있으랴! 각설이타령이 흥겹게 흘러 나오는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장단 맞춰 박수도 치고, 어린 시절 자주 해 먹던 뽕기, 띠기도 빼 놓지 않고 아이들에게 권유하며 아빠의 향수를 설명해 주었다. 노오란 산수유꽃을 보지 못한 것이 내내 아쉽기는 했지만 다음을 기약하고 지리산으로 향했다.

우리 회사의 하계휴양소가 마련되던 지리산 화엄사 인근에 숙소로 정한 후, 19번 국도와 화엄사 입구의 갈림길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지리산의 정취를 맘껏 느끼며 1인당 1만원짜리의 비싼 식사를 시켜 산나물과 된장찌개를 배부르고 맛있게 먹었다. 식사가 끝난 후 식당 안에 마련된 고사진을 보면서 100년 전 시대 상황을 돌아보는 것도 유익한 시간이었다.

게으른 아침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 번 지리산의 위대함을 느끼게 된다. 산은 내게 바라는 게 없이 너무도 달콤하고 새로운 삶을 안겨 준다. 야트막하게 깔려 있는 안개는 환하게 높이 떠오른 햇살에 가려 나뭇잎에 물기를 전해 준다. 감히 내가 흉내낼 수 없는 모습들이다.

숙소 뒤의 국립공원관리공단 건물에는 예전에 방사했던 반달곰 새마리를 다시 키우고 있다. 반달곰을 사육하는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올해에 인근 산자락을 이용해 반달곰을 방사해서 키울 수 있도록 사



▲매화꽃보다 더 예쁜 아내



▲섬진강을 배경으로, 자선이와 나경이

파리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부모님은 물론 어린이들의 좋은 학습장이 될 것이라고 적극 추천한다.

전날 저녁을 먹은 식당에 다시 들러 섬진강 전통음식인 재첩국으로 흥분분하게 배를 채운 후 경상남도과 전라남도를 이어 주는 화개장터와 박경리의 소설 '토지'의 주무대인 평사리 최참판댁을 지나 전남 광양읍 매화마을 입구에 도착했다. 경상남도과 전라남도를 오가기 위해서는 언제나 섬진강 다리를 건너야 한다. 매화마을 역시 경상남도에서 진입하는 경우 경상남도 하동군과 전라남도 광양군 사이의 섬진교를 건너야 도착할 수 있다.

섬진교를 건너는 순간부터, '아, 여기가 매화마을이구나!' 할 정도로 매화나무가 줄을 지어 심어져 있고 그 옆으로는 섬진강의 넓은 강줄기가 한가로움을 더해 준다. 매화마을을 둘러 보고 나서 섬진강 자락의 모래사장을 거닐며 모처럼 봄 햇살을 만끽했다.

매화마을은 매년 3월이면 온 마을이 매화꽃으로 뒤덮여 꽃 동산을 이룬다. 광양군 다압면은 매화 생육에 좋은 천혜의 기후조건과 지형을 갖추고 있어 일본 매실보다도 품질과 맛이 월등히 뛰어나다고 한다. 1931년경 현 청매실농원의 홍쌍리 여사의 시아버지(김오천)께서 일본에서 귀국할 때 밤나무와 함께 매실나무 5천주를 가지고 들여와 이 곳에 심었는데, 그 이후 온 마을이 매화를 심으면서 매화마을이 되었다고 한다. 이 곳에서 열리는 매화축제가 해가 갈수록 성황을 이루면서 마을 앞에 넓은 주차장과 간이식당을 설치하기는 했지만, 3월 중순 이후 주말에는 밀려드는 차량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1박 2일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피곤했던지 아내와 두 딸은 곤히 잠들어 있다. 집에 거의 도착할 무렵, 작은 딸이 잠에서 깨어나며 한 마디를 던진다. "아빠, 우리 어디 갔다 온 거야?" 다시 또 새로운 여행을 만들어야 하는 가장의 행복한 고민이 시작된다.

봄을 느끼고 본 것도 좋았지만 오며 가며 가족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준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에 난 오늘도 내일을 힘차게 준비하며 다시 한 번 삶의 의지를 다져본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소원해본다. (글·사진/구매부 이서우 과장)



▲매화마을에서 모처럼 온 가족이 함께



▲지리산에서 큰딸



▲구례군 산동마을에서 둘째딸

“봄이 왔네
봄이 와~”

Digital camera gallery

디지털로 만나는 풍경들을 모았습니다.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재미있는 장면이나 좋은 풍경 등을 보내주세요.



▲봄의 전령 매화



▲회사 앞에 핀 벚꽃과 개나리



▲담고 싶은 일출(김길순)



▲사옥 앞에 핀 산수유 꽃



▲봄이 오는 길을 바라보며 주작산에서(신세웅)



▲자주달개비



▲매화마을의 춘심박세훈



▲붉게 피어오르는 연산홍



▲움틀대는 꽃 봉오리



▲안면암 뒤의 양식장 통발(김길순)

▲덕유산의 만설(박세훈)

봄, 그리고 속리산

▲문장대 정상에서 바라 본 소백산맥

“봄은 고양이로다.”

어느 유명한 시인이 말했던 것처럼 고양이 같은 봄은 땅끝부터 시작하여 요염한 자태로 어느 새 우리가 있는 이 곳까지 올라왔다. 두꺼운 옷들에 지치기 시작한 3월 언젠가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여 나무와 꽃들의 초록빛으로 퍼지기 시작한 봄기운을 만끽하고 자 충남 보은과 경북 상주에 걸쳐 자리잡은 속리산 자락을 찾았다.

1970년 3월 국립공원으로 지정 된 국팔경 중 하나인 속리산은 태백산맥에서 남서방향으로 뻗어 나오는 소백산맥 줄기 가운데 위치하여 충북 보은군, 괴산군, 경북 상주군의 경계에 있는 산이다. 해발 1057m인 속리산은 화강암을 기반으로 변성퇴적암이 섞여 있어 화강암 부분은 날카롭게 솟아오르고 변성퇴적암 부분은 깊게 패여 높고 깊은 봉우리와 계곡은 가히 절경을 이루고 있어 광명산(光明山), 미지산(彌智山), 소금강산(小金剛山)으로 불리기도 한다

역사가 살아 숨쉬는 구비구비..

속리산은 대전에서 자동차로 1시간 30분 거리에 있으며, 우리 나라 대사찰 중의 하나인 법주사가 위치하여 사시사철 전국의 등산객과 수학여행을 온 학생들로 봄비는 명산 명소로 널리 알려져 있다. 속리산에는 주봉인 천황봉(1058m)을 비롯하여 입석대, 문장대 등 1,000m가 넘는 봉우리와 깊은 계곡이 절경을 이루고 있다. 해당 지역에 따라 크게 보은지구와 화북 지구, 선유동 지구, 쌍곡계곡 지구, 문경 선유동 지구 등으로 나뉜다.

이렇듯 동과 서로, 그리고 남과 북으로 넓게 퍼져 있는 속리산의 구비구비는 경쾌한 자연경관뿐 아니라 수많은 고적들과 천연기념물 및 각종 문화재들로 가득 채워져 볼 것도 많고, 느낄 곳도 많은 곳이다. 그 중 속리산을 으뜸으로 대표하는 곳은, 누구나 학창시절 수학여행을 통해 한 번쯤 가봤을 만한 정2품 소나무, 법주사, 문장대 코스라 할 수 있다.

신라 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탐방하고자 법주사로 향하는 길목에는 수려한 자태의 정이품 소나무가 자리잡고 있다. 천연기념물 제 103호로 지정된 이 소나무의 수령은 600년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나무의 크기는 높이 15m, 가슴높이의 둘레 4.5m, 가지의 길이 동쪽 10.3m, 서쪽9.6m, 남쪽 9.1m, 북쪽 10m이다. 이 나무가 차지한 면적은 1158.3㎡이다. 1464년 조선조 세조가 속리산 법주사로



▲ 금동미륵대금



▲ 법주사로 향하는 금강문



▲ 법주사의 철당간

행차할 때 타고 있던 가마가 이 소나무 아랫가지에 걸릴까 염려하여 “연(輦) 걸린다”고 말하자 소나무는 스스로 가지를 번쩍 들어올려 어가(御駕)를 무사히 통과하게 했다고 한다. 이런 연유로 세조는 이 소나무에 정2품(지금의 장관급) 벼슬을 내렸다고 한다. 밑부분에 외과수술(外科手術)의 흔적이 남아 있으나 아직도 수세가 싱싱하고 수형(樹形)은 우산을 펼쳐 놓은 듯 아름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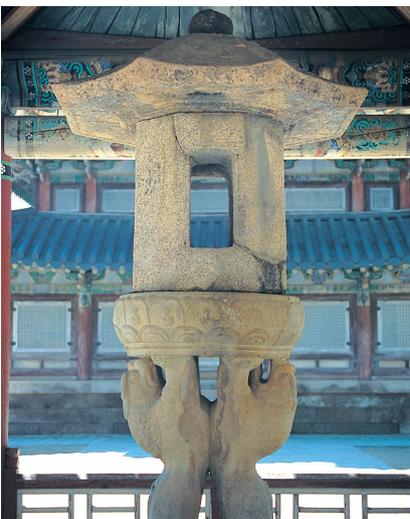
정2품 소나무를 보고 속리산 입구의 조각공원과 오랜 수령의 상록수들을 지나고 나면 곧 이어 법주사에 다다를 수 있다. 법주사는 진흥왕 14년(553년)에 의신조사가 세웠다. 경내에는 우리 나라 3대불상전의 하나인 대웅보전을 중심으로 용화전, 원통보전 등 수많은 전각들이 있으며 주요 문화재로는 팔상전(국보55호), 석연지(국보64호), 쌍사자 석등(국보5호), 괘불(보물1259호), 사천왕 석등(보물15호)이 있다. 이렇듯 법주사의 작은 모퉁이까지 가득 채운 문화재들은 그 크기가 큰 것에서부터 소소한 것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나 미술사적으로나 의미가 커 국보로 지정된 것들이 많다.

그 중 쌍사자 석등은 법주사 대웅전과 팔상전 사이에 있는 통일신라시대의 석등으로, 사자를 조각한 유물 가운데 가장 오래되었으며 매우 특수한 형태를 하고 있다. 석등을 세운 시기는 성덕왕 19년(720)으로 추측되며, 조금 큰 듯한 지붕돌이 넓직한 바닥돌과 알맞은 비례를 이루어 장중한 품격이 넘친다. 신라의 석등이 8각 기둥을 주로 사용하던 것에 비해 두 마리의 사자가 이를 대신하고 있어 당시로서는 상당히 획기적인 시도였을 것으로 보이며, 통일신라는 물론 후대에 가서도 이를 모방하는 작품이 나타났다고 한다. 같은 절 안에 있는 법주사 사천왕석등(보물 제15호)과 함께 신라 석등을 대표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극락의 경치 속으로

문장대는 법주사에서 동쪽으로 약 6km 지점, 상주시 화북면 장암리에 위치한 해발 1,054m의 석대이다. 가파른 돌계단에 치켜 이제는 더 이상 못 오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 문장대는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 이 암석은 50여 명이 한꺼번에 앉을 수 있는 규모이며, 이곳 바위 틈에는 가물 때가 아니면 늘 물이 고여 있는 석천이 있다.

▼ 쌍사자석등



▼ 마애여래의상



▶ 팔상전





▲ 문장대에서 바라본 소백산맥

문장대는 원래 구름 속에 묻혀 있다 하여 운장대(雲藏臺)라 하였으나 조선시대 세조가 복천에서 목욕하고, 이 곳 석천의 감로수를 마시면서 치명할 때 문무 시종과 더불어 날마다 대상에서 시를 읊었다 하여 문장대라 부르게 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이 곳에서는 속리산 최고봉인 천황봉과 관음봉, 칠성봉, 시루봉, 투구봉, 문수봉, 비로봉 등 높고 낮은 봉우리가 한 눈에 들어온다.

문장대로 향하는 길의 험난함을 말해주듯 이 곳에 세 번 오르면 극락에 갈 수 있다는 전설이 있을 정도다. 극락의 열쇠를 하나 지고 힘들게 올랐던 산자락을 내려오면서 봄이 또 한 발자국 성큼 다가왔음을 느낀다. (글·사진/모혜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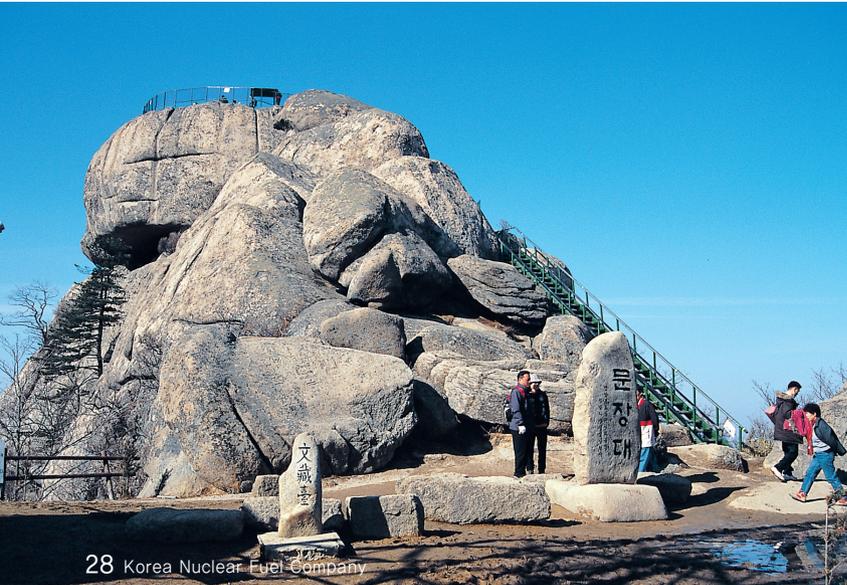
등산코스

1. 주차장-법주사-세심정-중사자암-문장대-신선대-세심정-법주사-주차장(왕복 5시간)
2. 가족과 함께 가벼운 산행을 즐기고 싶으면 세심정까지만 올라갔다 내려오면 된다.(왕복 3시간)

*가는 길 : 경부고속도로 청주나들목이나 중부고속도로 증평나들목에서 나가 괴산-속리산 방향의 이정표를 따라가면 된다.

▼ 정상인 문장대, 내려다보이는 세상이 모두 내 손안에 있다.

▼ 정상으로 오르내리는 마지막 계단



문화가산책

어느 새 움틀대던 꽃망울이 가득 피어나는 4월입니다. 기나긴 겨울 동안 무거운 옷에 지치고, 질푸른 초록이 그리웠던 주말 오후 소중한 사람과 멀지 않은 문화 공간에서 따뜻한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전시/공연명	장소 및 일시	내 용	문의처
살사댄스	KAIST 대강당 4.28.	라틴댄스 밴드, 살사인의 공연	KAIST 홍보팀 869-2295
명창 안숙선의 "우리 소리 콘서트"	KAIST 대강당 5.26.	해설과 함께 하는 판소리 공연	KAIST 홍보팀 869-2295
이사오사사키의 피아노 숲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아트홀 5.19.	일본 뉴에이지 피아니스트 이사오사사키의 피아노 연주	대전문화예술의전당 610-2222 www.djac.or.kr
고구려 대탐험전	대전국립중앙과학관 4. 1.~ 6.12.	어린이들에게 귀에 익은 명작동화를 신나는 춤과 노래로 담아냄.	대전국립중앙과학관 www.science.go.kr
마이크로 체험전	대전국립중앙과학관 4.11.~ 5.10.	거미의 출눈, 소나무 잎의 숨구멍 등을 특수 현미경과 사진으로 보면서 마이크로 세계 직접 체험	대전국립중앙과학관 www.science.go.kr
루브르-大田	아주미술관 3.11.~4.24.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소장의 동판화와 대전, 충청지역 판화 작가들의 작품을 함께 소개	아주미술관 863-0055 www.asiamuseum.org

3月の 공연소감

스펀지 같은 국악공연

3월 31일 열린 대전시립연정국악연구단과 함께 한 원자력가족을 위한 예술마당은 한 마디로 스펀지였다. 모든 관중을 국악연주 속으로 흡입한 강한 흡입력을 가진 스펀지 같았던 국악공연! 너무 유익하고 좋은 공연이었다. 평소에는 전혀 들어볼 기회가 없는 궁중음악도 들어보고 대금연주도 듣고 꼭 내가 궁궐의 귀빈이 된 느낌이었다. 공연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가야금 연주였다. 예전에 듣고 예상했던 가야금 소리가 아니라, 하프나 성능 좋은 전자기타 연주 같이 너무 맑고 예쁜 소리로 연주해 깜짝 놀랐다. 그렇게 산만하던 아이들을 조용하게 만들었을 정도면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 내 생각에는 아마 아이들이 너무나 좋은 엄마 자장가인 줄 알고 다 잠들었던 것 같다.

다음에 이런 공연이 있으면 꼭 다시 보고, 듣고 싶다.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가 있으면 아이들 손잡고 남편 손잡고 가족이 함께 꼭 다시 오고 싶다.

그렇게 하려면 국악공연이 계속 이어져야 할텐데... 그때까지 계속 계속했으면 좋겠다. (금/경리부 전미현)

축하합니다



품질보증실 품질관리1부의 김향래 기술과장이 2005 서울 국제마라톤대회 겸 제76회 동아마라톤대회에서 자신의 최고기록이자 KNFC 최고기록인 마라톤 풀코스 (42.195Km) 기록을 1분 이상 단축한 2시간51분03초에 달려 KNFC의 최고기록을 또 다시 갱신하였다. 김향래 기술과장은 "사실 마라톤은 고통스럽지만, 달리며 맞는 숨가쁨이 반드시 진한 성취감을 가져온다"며 "운동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각자 자기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 땀을 흘려보길 권한다"며 소감을 대신하였다.



경수로연료처 강종렬 부장이 4월 8일 대한전기협회에서 주관하는 제20회 전기산업진흥 촉진대회에서 산업자원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일상의 즐거움을
배가하자.



김 영 로
테니스회 총무

세련된 외모와 과성(테니스 경기시 긴장해소와 타점 조정 역할)을 지르는 것으로 유명한 사라포바(러시아, 여) 선수가 국내에서도 테니스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지금도 종종 스포츠 뉴스를 통해 이 선수의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데, 푸른 하늘과 녹색의 그라운드에서 경기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많은 분들이 나도 한 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은연 중에 일상의 스트레스를 테니스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테니스의 매력은 일단 테니스장이라는 곳의 흠을 밟는 순간부터 사람들의 마음이 한결같아진다는 것이다. 노란 공을 만지는 순간부터 마음도 덩달아 둥글어지니 저절로 머리가 맑아지며, 손발이 바빠져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진다.

공을 새로 떠나 안 떠나, 내가 떠나 남이 떠나 똑같이 즐거울 수 있고, 게임을 이기나 지나 게임 후 마시는 한 잔의 시원한 맥주의 맛은 같으며, 공을 잘 치나 못 치나 같은 시간과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절로 가까워진다. 또한 아무리 높은 학력을 가진 사람이나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같은 웃음을 가질 수 있으며, 흠뻑 땀 흘리고 난 뒤 사우나에서 서로 벗은 몸으로 등 닦아주다 보면 혈육보다 더 가까운 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테니스의 매력이다.

테니스는 배우기 쉽지 않은 운동이지만, 일단 배우면 일상의 자신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며 생활이 즐거워진다.

미국의 닉 볼리티에리(테니스 아카데미 운영자)가 역설한 '테니스를 잘하려면 중요한 10가지 요소(Ten F)' 로 테니스에 필요한 중요 요소와 일상 생활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순번	테니스의 요소	일상요소	중요한 이유
1	Focus (타점)	집 중	테니스 실력 향상은 눈과 볼, 볼과 라켓, 볼과 코트의 타점(초점)을 얼마나 정확히 맞추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초보자에서부터 상급자, 선수, 프로 선수에 이르기까지 누구를 막론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다.
2	Footwork (발놀림)	신 속	테니스 실력 향상은 발이 얼마나 가벼운가, 무거운가, 또한 발놀림이 얼마나 빠른가에 따라 결정된다.
3	Feel (감각)	센 스	테니스 실력 향상은 볼에 대한 센스, 게임에 대한 감각, 즉 느낌과 감각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인가로 결정된다.
4	Fight (경쟁심)	근 성	테니스 실력 향상은 듀스에서 게임을 꼭 따내고 게임을 지고 있다가도 역전을 시키고 타이브레이크에 가면 항시 이길 수 있는 근성과 승부사 기질 등이 얼마나 있느냐로 결정된다.
5	Follow (지시에 따름)	이 해	테니스 실력 향상은 배우는 과정 또는 교정할 때 얼마나 지시를 잘 따르고 이해를 제대로 하느냐 또는 빨리 하느냐로 결정된다.
6	Figure (자세)	기 초	테니스 실력 향상은 이왕이면 제대로 된 폼, 멋있는 폼과 안정된 자세를 얼마나 유지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7	Fearless (두려움 없는)	과 감	테니스 실력 향상은 상황에 따라 얼마나 과감하게 플레이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상대방이 잘하니까, 유명하니까 먼저 기죽어 플레이 하게 되면 그 게임은 지게 될 것이다. 또한 성격적인 요인에 의해 소심하다 하더라도 코트에 들어서면 순간만큼은 약마가 되어야 한다.
8	Future (미래)	목 표	목표를 설정하고 미래를 계획하며 나이가 들어서는 테니스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한다.
9	Fire (열정)	정 열	테니스 실력 향상은 테니스에 대한 예절, 상식, 이론, 정보 등에 대한 열정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10	Fun (재미)	즐 거움	위 아홉 가지 요소들을 다 갖추었다고 해도 재미가 없다면 쉽게 테니스를 그만두게 될 것이다. 항상 재미가 있어야 하며 항상 재미가 있다고 생각해야 꾸준히 테니스를 할 수 있다.

1986년 창립한 테니스회는 평소 123명에 달하는 회원의 다양한 의사반영, 경기운영, 운동동기 부여 및 열린 자료공개 등과 같이 의욕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각종 대내 정기경기의 개최 및 제1회 사장배 사내대회의 성공적 수행과 매년 과기부장관배, 연구단지 연합대회, 유성구청장배와 같은 대외 경기를 통해 회사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다.

테니스회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정말, 테니스는 재미있다.’





2005 산업안전 경영대상 대상 수상

우리 회사가 한국경제신문에서 주최한 산업안전경영대상 평가에서 제조부 분 대상으로 선정되어, 4월 1일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상을 수상하였다. 우리 회사는 산업안전경영체제인 KOSHA 18001인증, 무재해 9배 목표 달성, 원자력안전마크 획득 등 산업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산업안전경영대상은 고도성장 경제의 그림자로 인식되던 '산업안전'이 중요한 경영 요소로 떠오르면서 '안전=경쟁력'이라는 인식이 퍼짐에 따라 생산 및 소비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로부터 근로자 및 소비자의 안전 과 건강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연료봉 200만개 생산 돌파 기념식 개최

연료봉 200만개 생산 돌파 기념식이 2월 23일 양창국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공장 광장에서 개최었다. 지난 1989년 고리 2호기용 경수로 핵연료 연료봉을 생산하기 시작한 우리 회사는 16년 만에 연료봉 200 만개 생산을 돌파하게 됐다. 연료봉 200만개는 원자력연료 집합체 약 8,200다발을 생산할 수 있는 양으로 총 연장길이는 8,000km(경부고속도 로 서울-부산 9번 왕복길이)에 달한다. 이는 우리 나라 1천만 가구가 약 5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품질부문 경영자 검토회의 개최

품질부문 경영자검토회의가 3월 24일 임원, 경영간부 및 관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탁회의실에서 열렸다. 품질부문 경영자검토회의는 경영 자의 품질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목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우리 회사는 1997년부터 매년 품질시스템의 적합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고, 한 해 동안 의 품질시스템의 운영실적에 대한 검토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안내관 용접기 개발 완료 기념식 개최

한국표준형 안내관 용접기 개발 완료 기념식이 양창국 사장을 비롯한 임직 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3월 23일 제1공장 안내관 제조현장에서 열렸다.



이달의 TPM 인물 시상

TPM추진팀은 2월과 3월의 TPM 인물로 연료서비스실 류제성 기술과장 과 생산관리처 설비기술부 권영대 사우를 선정하여 각각 시상하였다. 류 제성 기술과장은 각종 공구 및 부속품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손상 난 부속품은 소형선반과 그라인더 머신으로 자체 보수하여 사용함으로써 원가절감에 기여하였으며, 권영대 사우는 우리 회사 4개 동에 대한 유틸 리티 설비 자동화제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력의 효율적 운영, 냉난방 에너지 절감 등 운영비 절감에 기여하였다.

양창국 사장, 원자력 특강

양창국 사장은 3월 31일 우리 회사에서 열린 원자력가족을 위한 예술마당 공연에 앞서 참석한 관람객을 대상으로 원전수거물 센터 부지 선정과 관련 원자력에너지의 우수성 및 원전 수거물 관리의 안전성과 유치지역에 대한 경제적 이익 등에 대하여 강의를 실시하였다.



경영혁신·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 거행

경영혁신·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가 양창국 사장을 비롯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4월 14일 한마음관 강당에서 거행되었다. 이번 결의대회는 경영혁신·윤리경영에 대한 CEO의 강력한 추진 의지와 전직원의 추진력을 제고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양창국 사장은 이날 결의 대회사를 통해 경영혁신과 윤리경영은 기업의 생존을 위한 양대 축이라고 역설하고, 전 직원의 역량을 모아 경영혁신과 윤리경영에 박차를 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2005년 경영혁신·윤리경영 추진계획 요약 보고, 경영혁신·윤리경영 실천 결의문 낭독과 처·실장급 이상 간부의 서명식, 경영혁신 비디오 상영 등으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경영혁신 변화요원 사령장 수여

경영혁신 변화요원에 대한 사령장 수여식이 3월 25일 원탁회의실에서 열렸다. 우리 회사는 부서내 경영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체(실)별로 모두 17명의 변화요원을 선정하였으며, 각 부서의 변화요원들은 부서내 혁신활동을 주도하고, 혁신관련 자체교육 및 활동상 애로사항을 개선하며, 혁신리더(각 처실장)를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생산혁신 다짐대회 개최

생산본부(본부장 김풍오)는 본부 내 직원들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하여 우리 회사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한 생산혁신 다짐대회를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유성 유스호스텔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다짐대회에는 생산본부 간부 및 직원 50여 명이 참석하여 공정투입 전후 우라늄 계량차이 발생원인 및 해결방안, 중장기 제조원가 전망 및 원가절감 방안 등을 비롯한 5개 주제를 놓고 많은 아이디어를 도출하였다.



연구심의위원회 개최



설계기술원(원장 이종철)은 3월 23일 소회의실에서 심의위원 및 과제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2004년 종료된 회사 주관 각 과제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윤리경영 우수기업에 선정

우리 회사가 산업자원부에서 실시한 '주요기업의 윤리경영 실태조사'에서 윤리경영 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우리 회사는, CEO의 윤리경영 의지, 사회적 책임준수 등을 보여주는 'CEO' 분야와 불공정 거래 등을 평가하는 '협력업체' 분야 및 '지역사회'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하였으며, '협력업체' 분야는 46개 공기업 중 상위 10% 안에 드는 높은 평가를 받아 윤리경영 우수공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원자력가족을 위한 예술마당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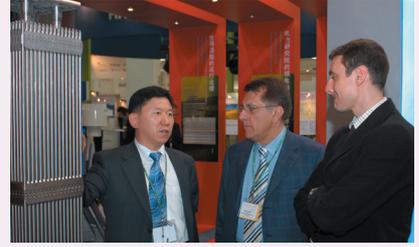
우리 회사는 3월 31일 직원 및 직원가족을 비롯하여 일반인을 초청하여 한마음관 대강당에서 대전 시립연정국악연주단과 함께 하는 원자력가족을 위한 예술마당을 개최하였다. 이날 공연에는 약4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하여 국악연주와 민속무용 공연 등 정통 및 현대화된 음악을 들으며 공연을 만끽하였다.

상해 국제 원자력산업 전람회 참가



우리 회사는 4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중국 상해에서 열린 제6차 상해 국제 원자력산업 전람회에 참가하였다. 이번 전람회에는 우리 회사를 비롯하여 한전, 한수원(주), 한국전력기술(주), 한전기공(주), 두산중공업(주) 등이 한국관으로 공동 참가하여, 한국표준형 원전(OPR1000 · APR1400)을 중심으로 우리 나라의 원전기술능력 및 기술자립경험을 중점 소개했다.

특히 '중한합작 실현자주(中韩合作 實現自主)'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중국 원전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전람회에는 한국을 비롯하여 프랑스, 러시아, 캐나다, 일본, 스페인 등 20여 개국 130여 개 회사가 참가해 열띤 홍보활동을 펼쳤다.



야생화 단지 조성 및 식목행사 실시



시설관리부는 식목일을 맞이하여 4월 1일 식목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각 부서 직원들이 참석하여 정문 경사면과 사옥주변에 나무수국 및 담쟁이 등 4종류의 나무를 식수하였다.

승격고시 실시

2005년도 승격대상자에 대한 승격고시가 3월 25일 한마음관 다목적회의실에서 실시되었다. 이날 승격시험에서는 4직급 승격대상자 총 8명이 출석하여 사규 및 논문 등 두 시간에 걸쳐 시험을 치렀다.

노동조합 창립 16주년 기념식 거행



우리 회사 노동조합(위원장 권교안)은 4월 2일 한마음관 대강당에서 내빈 및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제16주년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산악회, 주작산에서 3월 산행 실시

●산악회는 3월 19일 회원 24명이 참가한 가운데 3월 정기 산행(제181차)을 전남 강진군 소재 주작산(475m)으로 다녀왔다. 주작산은 봉황이 날개를 활짝 펴고 나는 듯한 형상을 지닌 산으로 곳곳에 길게 암능을 형성하고 있어 멋진 남해 조망을 제공하고 산행에 재미를 더해주는 코스로 약 5시간에 걸쳐 산행을 즐겼다.



야구회, 개막전서 승리

●야구회는 3월 26일 엘지 화학(연) 구장에서 치러진 대덕연구단지 야구선수권대회 개막전에서 조폐공사를 맞아 11대 6으로 승리했다. 이날 경기에서 야구회는 탄탄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정태선, 오택근, 임재운, 염동중 회원 등의 안정된 투구와 염동중, 차정술 회원 등의 활발한 타격을 앞세워 기분 좋게 개막전을 승리로 장식했다.



볼링회, 연구단지연맹 개인전 우승

●볼링회는 3월 26일 대덕롯데볼링장에서 열린 연구단지연맹 협회장배 볼링대회에 김용재 회원이 개인전에 참가하여 4게임 평균 215.75점으로 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테니스회, 자체 개막전 열어

●테니스회는 3월 24일 사내 테니스코트에서 회원 25명이 참가한 가운데 2005년 개막전 경기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경기 결과 청룡팀에서는 문유돈, 최재돈 조가 우승을, 최신규, 장국형 조가 준우승을 차지하였으며, 백호팀에서는 류복현, 신규철 조가 우승, 황창환, 김영로 조가 각각 준우승을 차지하였다. 한편 정기총회 결과 신임 회장에 백인석 회원, 감사에 유환준 회원이 각각 선임되었다.

축구회, 과기부장관배 출전

●축구회는 3월 26일 열린 제4회 과기부장관배 축구대회 예선전에서 2승 1패의 성적으로 16강에 진출했으나 승부차기 끝에 석패, 8강 진출에 실패하였다.



조우회, 현천제로 출사

●조우회는 3월 26일 논산 소재 현천제에서 회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도 시조회를 가졌다.



자전거동호회, 계족산서 라이딩

●자전거동호회는 3월 12일 회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계족산 임도에서 제2회 라이딩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도룡동 중앙박물관에서 출발하여 계족산에 이르는 여정으로 진행되었다.



농구회, 자체 평가전 실시

●농구회는 3월 18일 사내 농구코트에서 회원간 친목도모 및 체력단련을 위한 제1차 평가전을 실시하였다.

초우회,골프대회 개최

●초우회는 4월 4일, 연구단지 체육공원 골프코스에서 2005 원자력연료 한마음 골프대회를 개최하였다. 회원 20명이 참가, 5팀으로 구성하여 경기를 치렀다.

사표를 갖고 다닌 사나이



김 봉 오
생산본부장

얼마 전 인사 공지사항에서 IAEA에 파견 나가있던 이용성 부장의 의원면직이라는 퇴직명령이 난 것을 보았다. 의원면직 이라함은 개인사정으로 회사에 사표를 제출하여 회사에서 이를 수리한 것이다. 그런데 나는 이 인사명령을 보고 만감이 교차했다. 이 부장이 이번에 회사에 제출한 사표는 실제로 그가 두 번째 쓴 사표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때 영광 3·4호기 핵연료 국산화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어려웠던 일들이 한꺼번에 떠올랐기 때문이다.

1993년 8월 어느날, 이 부장은 나에게 와서 봉투를 내밀며, “처장님! 여기 제 사표를 받아 주십시오.” 하는 것이었다. 나는 어이가 없어 이 부장의 얼굴을 쳐다보니 사표 내는 사람의 얼굴에 미소까지 머금고 있었다.

나는 “무슨 일이야! 사표를 쓰다니.” 하고 물었다. 그는 “제가 이 사표를 써 가지고 2년째 제 호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면서 영광 3·4호기 초기노심 연료 제작에 필수적인 용접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표를 내려고 하였습니다. 이제 용접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처장님이 이 사표를 찢어버려 주셨으면 합니다”라고 답했다. 나는 그 당시 그의 심정을 충분히 헤아리고도 남았었다.

이에 따라 1987년 발주한 영광 3·4호기 건설 사업부터는 원전건설 주계약자를 국내업체로 하고 외국업체는 일부분에 한정하여 하도급으로 참여시키는 국내 주도형으로 전환하였으며, 공급계약과는 별도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기술자립을 위한 준비를 하여 왔다.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영광 3·4호기 프로젝트에서는 기술자립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각 관련사는 한전에 요구만 하면 도입기술대가를 받을 수 있었고, 우리 회사도 해당되었다. 그러나 그 당시 실무 총 책임자는 무료로 해 주겠다는 제조분야의 훈련 프로그램마저 제외시켜 버렸다. 모든 관계사는 CE 및 기술도입선에 로열티를 지급하여 협조가 잘 되었으나 우리 회사만 CE와 부품공급계약서 외에 어떤 공식적인 관계가 없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무슨 문제가 있어도 당시 CE는 협조하여 주지도 않았고 자기들의 공정을 잘 보여주지도 않았다.

그 당시 유수의 핵연료 성형가공회사는 자기 자신의 핵연료 설계기술과 제조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핵연료 설계방법 및 기준 그리고 제조기술이 회사마다 차이가 있었다. 우리 회사에서는 독일 Siemens의 기술을 도입하였기 때문에 Siemens의 품질기준과 제조방법을 채택하여서 한국 표준형 원자력발전소가 될 CE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영광 3·4호기 핵연료 초기노심 제작에 필요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89년 7월 '영광 3·4호기 사업추진전담반'을 구성하였다. 전체적인 계획상 영광 3호기 초기노심 연료 제조는 1993년 8월에 착수하여 '94년 3월에 완료하여 '94년 5월에 181다발을 발전소에 인도하게끔 되어 있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배경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93년 초에 우리 회사는 생산처, 생산관리처, 품질관리처 등으로 되어 있었고 나는 생산관리처를 맡고 있으면서 영광 3·4호기 PM 역할

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김동훈 사장은 '93년 2월에 기술처를 신설하시고 나를 겸임시키는 인사를 하셨다. 그래서 이용성 부장은 영광 3·4호기 연료 제조에 관련된 기술적 문제를 생산처에서 하다가 기술처로 옮기게 되었고 나와 같이 일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는 '89년 7월부터 '93년 2월까지 4년 가까이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 중에서 봉단마개 용접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였으니 나와 같이 일하기 1년 전부터 사표를 써 갖고 다녔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CE의 Robert Newman 사장은 1993년 5월 3일 한전 경영진에 최후 통첩적인 편지를 썼다. 그 내용은 봉단마개 용접 등 CE 핵연료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기술기준을 KNFC의 기술로는 만족할 수 없으니 CE 원자로 전체에 대해 건전성에 대한 개런티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결국 그 요지는 CE가 미국에서 초기노심 핵연료를 제조해야 되겠다는 것이었다. 우리 회사도 한전 경영진으로부터 위 상황에 대해 조속히 보고할 것을 촉구받았고 '93년 8월부터 초기노심연료를 제조해야 하는 마당에 정말 긴급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봉단마개 용접 문제의 요점은 다음과 같았다. 우리 회사의 봉단마개 용접은 가압할 때 공압을 사용하는 저항 용접방법(Resistance Pressure Welding)을 사용하고 있었고 CE는 우리와는 다른 가압시 자력을 이용하는 저항 용접방법(Magnetic Force Resistance Welding)을 사용하였다. 그 용접 건전성 판단방법과 기준이 달랐으니 우리는 파열시험(Burst test)으로 하였고 CE는 금속조직시험(Metallographic test)로 하고 있었다. 원자력연구소 설계팀이 봉단마개를 설계하였고 우리가 용접을 하여 시험해보니 CE의 기준인 접합율(Bond rate)이 85%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만족 못하는 것이었다.

나는 기술처장으로 부임하자마자 긴급회의를 소집하였고 관계자들의 설명을 들었

다. 이용성 부장의 설명을 듣고 보니 좀 한심한 생각이 들었다. 2년 여 동안 똑 같은 설계를 갖고 셀 수 없는 만큼 시험을 해 봤으면 다른 방도라도 찾아봐야 했는데 그런 시도가 없었던 것이다. 나는 다른 각도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다음과 같은 방법론을 제시했다.

우선 첫째, 용접실험을 2년 여 해보았으니 그 실험은 중단한다. 둘째, 봉단마개의 원자재 및 상태를 CE의 것과 비교하자. 셋째, 금속조직시험 하기 전의 시료준비과정을 CE와 비교하자. 넷째, 금속조직시험상의 나오는 접합율의 판독방법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자. 다섯째, 동일한 시료를 KNFC와 CE에서 판독하여 비교하자. 여섯째, 상기 4가지에 이상이 없을 경우 설계 변경을 해보자. 특히 여섯 번째의 경우 원자력연구소 설계팀은 CE에서 승인한 설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기에 나는 꼭 그렇게 단언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다른 조치와 병행해서 최적설계를 다시 해보도록 협조를 구하였다.

영광 3·4호기 양산을 '93년 8월에 시작하게 되어 있으니까 6개월 여 밖에 남지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에 직면한 우리 회사 경영진과 프로젝트 수행요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한전의 관계자 즉 영광 3·4호기 프로젝트팀(당시 박용택 PM)과 핵연료팀에서는 이제서야 문제를 제기하면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조속히 대책 수립을 요구하였다. 우리팀은 상기의 방법에 대해서 세부대책을 세우고 매일 매일 회의를 하여 점검하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금속조직시험을 맡고 있는, 현재 신규사업처에서 일하고 있는 노재수 박사를 비롯한 QC팀을 주축으로 한 CE 방문단을 구성하여 Windsor 현지 공장을 방문하였다.

방문 첫째날 CE와 회의를 하면서 우리의 입장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면서 같이 노력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KNFC와는 기술제공의 무도 없고 아무런 기술대가를 받은 적이 없

으므로 제조공정은 물론 금속조직시험하는 QC실험실도 보여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정말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영광 3·4호기 프로젝트는 국가 에너지 자립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 프로젝트이다. 우리 KNFC와는 CE측 주장대로 협력을 해야 하는 어떤 의무도 없겠지만, 전체 프로젝트의 구성면에서 아주 적은 부분 때문에 프로젝트에 흠집이 생긴다면 앞으로 한전과 CE와의 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가겠는가. 그리고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기술은 독일의 Siemens에서 제공한 핵연료 제조기술인데 제조기술로 말하자면 독일기술이 세계 최고로 알고 있다. 다만 연료봉 마개 용접기술의 건전성 확인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차이점을 확인하고 CE의 기술기준을 만족하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설전을 한참 하고 나서야 CE는 공정도 보여주고 비로소 협조하기 시작하였다.

우리 모두는 한 가지 남은 이 용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 6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각자 최선을 다하였다. 우리가 시도한 시험 방법이나 결과 등에는 하자가 없음이 판명되었고, 우리가 문제의 원인으로 확률상 최하위로 여겨졌던 봉단마개 설계가 최적설계가 아니라는 것으로 밝혀졌다. 원자력연구소 설계팀과 우리 기술팀이 공동 협조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용접방법에 제일 적합한 봉단마개 설계를 찾아내었고 이 문제가 비로소 해결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이용성 부장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2년 여 이상을 끈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그는 훌га분하게 나에게 사표를 내밀었던 것이다. 우리 모두 그의 앞날에 영광이 있기를 바라며 그때 영광 3·4호기 초기노심 연료제조 국산화에 관여하였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3개월간의 결코 길지 않았던 수습기간



최희성
세라믹기술부



대학을 졸업하기 전 나에게도, 신문지상과 언론 매체들로만 들던 취업난이 현실로 되어 찾아왔다. 나름대로 열심히 취업준비도 했었고, 자신감도 있었기에 '어떻게 취업은 하겠지' 하는 생각을 가졌었지만 사상 최고의 취업경쟁 속에서 '나를 표현' 하고, '나를 알리기'에 많은 부족함을 느껴 부족함을 알아가고 채워가고 있을 때 한전원자력연료의 채용공고를 보게 되었다. 그때만해도 날개 꺾인 새처럼 취업에 대한 자신감보다는, 많은 두려움과 초조함으로 주눅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나를 표현하려 애를 썼고, 나를 알리기에 성의를 다한 결과, 합격의 길이 열리게 되었고, 그렇게 나의 사회로의 첫 걸음은 시작되었다.

많은 생각과 계획으로 입사를 기다렸다.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첫 출근일'이 다가왔고, 동기들과 신입사원 교육을 받으며 동반자라는 마음을 나누었다. 그리고 막연히 두렵기만 했던 부서배치를 받고, 부서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신입사원이라는 꼬리표 덕분에 많은 분들의 지도와 관심으로 조금씩 내 자리를 찾아가갈 수 있었고, 회사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게 되었다. 그렇게 시간은 조금씩 흘러가서 어느덧 수습직원이라는 꼬리표를 떼게 될 시점에 온 지금 나 스스로에게 '과연 나는 우리 회사에 필요한 인재가 되어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봤다. 그러나 한참을 생각해 봐도 확실한 답을 내리기가 어려웠다. 내가 경험했던 일보다, 경험해야 될 일이 더 많아서인지, 아님 나의 마음가짐이 부족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시간을 갖고 답을 찾아야 할 것 같다. 다만 지금 대답할 수 있는 것은 '필요한 인재'는 어떤 교육과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인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나의 질문에 대한 답은 어떤 답이 아니라, 나의 마음가짐과 노력으로 대신해야 할 것 같다.

처음 세라믹기술부에 배치를 받고, 보전업무를 소개 받으며 바라본 많은 선배님들은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맥가이버'였다. 그 분들은 어떤 장비가 고장이 나고, 어떤 장비의 이상징후가 발견이 되면, 작은 내용이라도 회의를 하며, 고장원인을 추측하고, 조치사항을 의논하고, 현장에 가서는

매우 신속하게 장비를 정상 가동시키는 모습에 매료되어 기술직이라는 내 직종에 대만족을 느꼈다. 조금 과장될지는 모르지만, 내가 바라본 시각에서 그 분들은 UFO라도 고쳐 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런 선배님들의 모습에 자연스럽게 개가 숙여지고, 존경의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서 '숙련이 저분들을 저렇게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될 때쯤 난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다. 선배님들이 장비에 대해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면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움과 감탄의 마음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선배님들과 나의 모습을 비교해 바라보며 나의 부족함을 느끼는 일밖에 없었다. 그제서야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게 되었다. 그 분들과 나의 차이는, 단순한 경험은 차치하고 장비를 대하는 마음가짐과 장비에 대한 애정으로 장비를 끊임없이 이해하려는 노력의 차이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교과서에 쓰여진 대로 내용을 이해하고, 암기했던 학창시절 16년의 교육을 무상하게 느끼는 데는 그렇게 약 2주간의 시간이면 충분했다. 무엇이 진정한 깨달음이고, 이해인지는 2주 동안 바라봤던 선배님들의 모습에서 더욱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제 나도 교육을 받고 있다. 교과서 안에서만 이해하고 암기하는 그런 교육이 아닌 온몸으로 부딪치며, 애정을 갖고,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참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전 깨달음을 얻고, 못 얻고는 저의 노력여하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깨달음을 얻고 못 얻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각인시켜 놓으려 한다.

11주간의 교육기간이 끝나 가는 지금에서야 '세라믹'이 무엇인지 조금은 이해할 것 같다.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고, 익혀야 할 것이 너무 많지만, 배움에 서두르지 않고 익힘에 게으르지 않는다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내 휴대폰처럼 관리하여 내게 낯선 장비가 아닌, 항상 가까이에 두고 장비를 완전히 이해하여 '보전'이라는 참 의미를 실천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선배님들에게 또 한 번 놀란 점이 있다면, 회사 내 모든 분들과의 유대 관계이다. '어느 부서' 라는 얘기만 듣고, 부서원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부서원들의 취미, 특기 등을 내 가족의 일처럼 알고 있는 모습에, 이곳이 회사인지 아님 집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였다. 지금도 내가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회사의 이런 모습은 대한민국 어느 회사에서도 쉽게 찾기 힘든 모습일 것이다. 회사가 아닌 하나의 가정이라고 표현해야 옳을 정도로 모든 직원들이 서로 서로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모습에, 나도 얼른 한 명의 가족으로 포함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그러기 위해선, 저의 막내로서, 회사내의 막내로서 많은 분들을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대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후 '인상 좋은 직원', '알면 알수록 괜찮은 사람' 이라는 말을 듣고 싶다. 그러기에 미소로 많은 분들을 대하려 노력할 것이다.

'처음을 잊지 않는 마음'. 이 말을 내가 우리 회사에서 정년 퇴직하는 그 날까지 실천하려 한다. 그 맘을 잊지 않고 직장생활을 해나간다면, 나는 틀림없이 필요한 인재가, '한전원자력연료'의 가족이 되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처음을 잊지 않는 마음' 이라는 말을 회사생활의 지침으로 삼으려 한다.

이제서야 사회로의 짧은 한 걸음을 내딛었다. 그리고 이 한 걸음이 단 한걸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라톤의 완주처럼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내딛어 나갈 것이다. 때로는 돌아가더라도, 힘이 들거나 지칠 때는 가족의 따스한 위로도 받으면서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내딛어갈 것이다.

그러하여 먼 훗날, 후배 직원들에게 보여지는 내 모습이, 지금의 내가 바라보고 있는 선배님들의 모습처럼 보여진다면 지금 내가 세워 놓은 가장 큰 계획이 실현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 날이 꼭 현실이 될 것이라고 믿으며, 많은 도움과 격려를 해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회사 내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는 신입직원 '최희성' 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형의 ‘빛나는 졸업’ 을 축하하며



김 병 국
경수로소결체부 기술과장



민족명절인 설날이 지나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기 까지 졸업 시즌을 맞게 된다. 큰 아이도 올해 중학교를 졸업 했다. 내가 중학교를 졸업하던 해를 되돌아 보니 졸업을 축하해 주고, 고등학교 진학을 격려해 주시던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에 ‘나도 이제 늙어만 가는구나’ 하는 회한이 스친다.

졸업은 학업을 끝내는 것 같은 느낌을 주지만 또 다른 배움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인 것 같다. 나이가 들어 가면서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항상 배움을 계속해야 하니까 말이다.

회사 동료 중에도 나이를 잊고 <주경야독>한 결과 ‘빛나는 졸업’ 을 하신 분이 있다. 회사의 이곳 저곳을 두루 거쳐 경수로소결체부의 만형인 이인용 기술과장이 바로 그 분이다. 이 사우와 대화를 해 보면 항상 박식하고, 사려 깊은 분인데, 배움의 길이 끝이 없다는 것을 몸소 실천하는 분이다. 이번에 한밭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것을 지면을 통해 다시 축하드린다. 이런 졸업이야말로 현대의 주경야독의 본보기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주경야독’ 의 어원을 보면, 중국 전국시대 때 초나라에 있던 오자서란 인물이 있었다. 그는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으로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자 복수를 다짐하며 도망갔다. 그 전에 태자란 인물도 아버지 평왕 때문에 도망가 있었는데 정나라에서 함께 만나 지냈다. 하지만 태자가 죽고(정나라 왕위 탈취를 실패하고) 오자서는 당시 태자의 아들을 데리고 또다시 도망, 마침내 오나라로 왔다. 그리고 당시 왕이던 합려와 손잡고 초나라 침공 계획을 세웠다. 오왕 합려가 전

쟁준비를 할 동안 오자서는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는데, 여기서 ‘주경야독’ 이 말이 나왔다.

이처럼 힘들게 공부하는 것을 주경야독이라 했는데, 사형이 마침내 큰 일을 이루었으니 옆에서 같이 근무하는 동료로서 지면이나마 진심으로 축하해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 게으른 나에게 항상 채찍이 되어주는 점 늘 감사하게 생각한다.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일에 많은 노력을 하는 게 아닐까 싶다. 각자가 가진 소망이나 희망이 없다면 더 이상 목표도 살아갈 이유도 없을 테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 이란 책에서 키에르케고르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절망이라 했는데, 살아가면서 삶의 목표와 희망이 없다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무덤으로 향하는 시간을 재촉하는 일이겠다.

사형의 이번 졸업은 아직 끝이 아닐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또 다른 희망과 목표가 정해지고 그 목표를 향해 정진하는 사형의 내일을 상상해 보며 사형보다 항상 게으른 나를 반성하고, 나의 인생 목표도 수정을 해야겠다.

어느새 봄이 찾아왔다. 양지의 새싹은 어느새 푸르름을 더하고 있다. 올 해는 큰 목표보다는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목표를 세워야겠다. 희망이 무너지지 않는 새로운 한 해를 위해서. 그리고 사형, 나이는 숫자입니다. 새로운 도전, 또 다른 희망의 성취를 위해 하시는 일 잘 되시기를 빌어 드립니다.

휴대폰, 예절을 지켜야...



선 경 희
자재관리부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휴대폰은 생활필수품의 차원을 넘어 신체의 일부나 다름없는, 아주 긴요한 도구로 자리잡고 있다.

휴대폰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많다. 통화는 당연한 것이고 기상정보, 주식정보, 운세 등 온갖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게임을 하기도 한다. 더더욱 신기하고 편리한 것은 즉석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점. MP3라는 기능까지 아주 다양한 디자인과 색깔, 언제 어디서나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점, 가격 또한 다양해 자기 취향에 맞게 가지고 다닐 수 있다. 카메라가 없어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영화, TV까지 볼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것이 오늘날의 휴대폰이다.

10년 전만 해도 무전기 같은 커다랗던 검은색 휴대폰이 이제는 손안에 쥘 정도로 아주 작은 모양으로 바뀌었고, 고가의 사치품이었으나 이제는 모두의 필수품으로 자리잡아 우리의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힘이 날로 커져 가고 있다.

그러나 너무 광범위하게 보급된 탓에 초등학교 조차도 많은 수가 휴대폰을 갖고 있다고 하고 어린애부터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까지 모두 한 손엔 휴대폰이 들려 있는 것이 사회 풍경이다.

그러나 휴대폰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다. 들어서서 안 되는 말도 때로는 들어야 하고, 밤 12시 아니 새벽 2시에도 잘못 걸려온 전화, 벨이 울려 전화를 받으면 뚝 끊어버리는 전화, 이럴 땐 정말 휴대폰이 밍고 짜증난다. 쓸데없는 광고 전화, 바쁘게 움직이는데 당황하게 만드는 장난전화, 갑자기 무엇에 당침됐다고 하는 등의 전화 등등.

휴대폰이 일상생활이 되고 널리 보급된 만큼 이에 따른 휴대폰 예절도 지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얼마 전에 나와 절친한 친구의 가족이 상을 당해 모 병원의 영안실을 찾은 적이 있다. 슬픔을 억누르고 상주와 인사를 한 뒤 돌아 나오는 중에 어디 선가 휴대폰 벨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벨소리는 잔칫집에서나 아니 생일축하 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니겠는가.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모두들 약속이라도 한 듯 눈들이 마주쳐 당황한적이 있다. 슬픈 상가의 분위기가 휴대폰 벨소리로 인해 갑자기 잔칫집이 되어버린 것이다.

휴대폰 벨 소리가 울려서는 안될 곳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조용해야 할 도서관, 극장,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곳 등 휴대폰 벨 소리가 다른 사람을 방해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럴 때는 진동으로 바꾸거나 잠시 꺼 두어도 괜찮을 것 같다.

또한 공공장소에서의 휴대폰 통화도 조심해야 한다. 길가에서, 차 안에서 그리고 사무실에서 무심코 통화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다른 사람에게는 소음공해가 될 수 있다.

젊은이들에게는 사랑의 속삭임으로,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는 집안의 안부전화로, 맞벌이 부부에게는 아이들 걱정으로 모두들 바쁜 일상 생활에서 자리에 앉아서 하지 못하는 전화를 휴대폰으로 하는 것이겠지만 때와 장소를 가리는 통화예절이 필요하다. 아주 작은 일이지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최소한 인상은 찌푸려지지 않을 것 같다.

주일날 교회에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들던 중 조용한 가운데 어디선가 갑자기 “날좀 보소 날좀 보소...” 하는 휴대폰 벨소리가 들려 모두의 시선을 집중시킨 일이 있었다. 휴대폰의 주인은 물론 모드 변경하는 것을 잊은 걸 알고 당황했지만 목사님의 재치 있는 한 마디로 한바탕 웃음으로 잘 넘긴 적이 있었다.

사람들은 행복과 성공을 취하기 위해 산다고 한다. 사랑의 성공, 건강의 성공, 인간관계의 성공처럼 사람들은 성공의 노예가 되어 이를 성취하면 행복으로 생각한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예절도 지키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예절을 지키는 사람에게서는 애써 멋 부리지 않아도 멋스러움이 자연스레 묻어난다.

휴대폰 얘기가 나온 김에 오늘은 잠시 짬을 내어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들려주면 어떨까. 우리 가족 모두 사랑한다고. 나도 사랑 사랑 부는 봄바람에게 전화를 해야겠다. 나를 아는 모든 이에게 사랑과 행복을 전해달라고.

고 장 난 휴대폰과 서 비 스 센 터



김 용 재
TPM추진팀 과장

2003년 말, 그때까지는 017로 나의 무선의 세계를 펼치고 있었으나, 그해 말 어느 날인가 그만 휴대폰을 물속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것이 지금의 011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던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upgrade된 휴대폰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몸부림치면 가끔씩 손에서 떨어져 휴대폰의 기능이 노화되고 있었다. 그리고 급기야 전원이 켜지지도, 켜진 상태에서 더 이상의 진행이 되지 않을 상황에 이르렀다.

바로 서비스센터를 찾아 나섰다. 아가씨의 아리따운 멘트를 듣고 갤러리아 근처를 20분 헤매다가 허탕을 치고 결국 도마동 본점 모퉁이에 있는 서비스센터를 찾았다. 찾았다는 반가움에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니 눈에 보이는 것은 용도폐기된 휴대폰인지, 전시된 휴대폰인지 몰라도, 많은 휴대폰이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 어떤 제복을 입은 사람이 앞에 와서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고 물었다. 속으론 ‘휴대폰 고치러 왔지, 뭐하러 왔겠노?’ 하면서 겉으론 ‘휴대폰이 고장이 나서...’ 설명을 하자, 직원 하는 말, 지금은 점심시간이니 1시간 뒤에 와서 다시 접수를 하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길래 갑자기 가슴 뜨거운 곳에서 무언가 올라왔다.

‘요즈음 어떤 시대인데, 당신들 편의주의로 하는 거야? 그리고 부품이 없다니?’ 최신 모델의 부품이 재고도 없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수리기간이 열흘이나 걸린다는 얘기에 어이가 없어 문을 박차고 나왔다. 결국 용전동에서 또 한번의 실경을 하고 본사 서비스센터의 담당자까지 통화를 하기에 이르렀다.

‘대기업의 서비스 처리가 무슨 이 모양이나, 최신 모델의 부품 수리가 금액을 떠나 일주일 이상이나 지체가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나의 하이톤의 목소리와 너무나 논리정연(?)한 접근에 ‘이 고객은 성질이 더러우니 빨리 해치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3일만에 수리해주겠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System 자랑을 하였다.

다른 불일이 있어 하는 수 없이 빨리 조치를 해달라고 하고 돌아왔다. 그리고 한 시간이 지나 전화를 해보니 수리를 유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다. 궁금해서 ‘그럼 떨어뜨려서 보드가 망가지면 모든 것이 유상이냐’고 묻자 그것은 본사에 알아봐야 한다고 하여 결국 본사 담당자와 통화를 하게 되었다.

2m 높이에서 몇 번씩 떨어뜨려 메인보드의 성능을 입증한다' 길래 '내 키가 185cm인데 그리고 지금까지 두 번 떨어뜨렸는데, 고장이 난다면 충격시험이 잘못되었거나, 스폰지에서 실험을 한 거냐고' 따졌다.

담당자가 잠시만요, 하더니만 웃선하고 얘기를 하는 것인지, 대기상태에서 15분이 흘렀다. 그리고는 '죄송합니다만 아까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2m가 아닌 1.8m이고 더 이상의 내용은 회사 규정상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 이해해 달라' 는 것이었다.

참으로 어이가 없었다. 어떻게 대기업에서 고객의 불만을 처리하는 모습이 저럴까? 고객만족을 최우선한다는 말도 말짱 거짓말 같았다. 너무 화가 나서 서비스센터 실장과 통화를 재시도했으나, 이런 나의 의도를 알았는지 전화는 1시간 30분 동안 불통이었다. 하지만 다시는 나와 같은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서비스센터 최고결정권자와 통화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최고결정권자의 대답도 기사의 말과 다를 바가 없었다. 할 수 없이 마지막 방법을 쓸 수 밖에 없었다. '청와대에 신문고라는 것을 아시죠? 소비자 또는 고객의 작은 불만을 어찌 해볼 수 없을 때나 국민들의 불멘 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그곳에 올려지면 회사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기사-상담원-실장-부장님과의 얘기한 대화내용을 가감없이 그대로 올릴테니 그리 아십시오. 대표이사님에게도 똑 같은 내용을 전달할 겁니다.' 라고 하자 최고결정권자의 반응이 금세 달라졌다.

"고객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의 입장을 설명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뭘 어떻게 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 말에 더욱 화가 치밀었다. '고객이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방법을 제시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는 것이냐...(중략) 올바른 응대요령 매뉴얼을 작성해 준데 대해 돈을 들고 찾아와서 감사의 말을 전해도 시원찮을 판에 에이, 성질 사나운 고객 만났으니 빨리 해결해야지 하는 인상으로 나를 대하느냐? 나의 대화는 일사천리였다.

"죄송합니다. 방법이 생각이 나질 않아서..."

"그러면 당장 최신 모델로 바꾸어주고, 입력된 정보를 옮겨 저한테 갖다 주시죠!"

"그 것은 좀..."

"그럼 같은 모델로 오늘 당장 제 앞으로 갖다 주세요!"

"서울에서 택배로 보내드려야 되니 내일까지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까지 몇 번씩 불편을 감수하였는데, 통신사에서는 규정이니, 기준이니 운운하면서 결국 해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다른 고객들에게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통화중에 목소리가 높아지고 한 것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그 다음날 아침 용전동 기사분으로부터 전화기를 교환해가라는 연락이 왔다. 한편으로 슝했지만 웃을 수 밖에 없었다. 고객만족의 시대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응당 받아야 할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또 불편을 이유로 참고 지낸다. 고객이나 회사나 모두 이런 점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故 한정택 부장을 떠나 보내고 나서

오늘도 창 밖은 흐리멍덩한 사람의 마음인냥 뿌연 공기만 흐르고 있다. 간간히 떨어지는 봄비는 공허한 이의 마음을 달래주지도 못하고 습박꼭질을 하고 있다. 그 거리는 이제 막 피어나는 개나리가 우리를 맞고 있고 작년에 피었던 그 목련은 올해도 잊지 않고 북쪽의 님을 향한 모습으로 꽃망울을 소담히 터뜨리고 있다.

어제의 울음 소리가 뇌를 스치는 듯, 가까이 들려오는 전동 드릴 소리는 어느 집안의 벽을 뚫고 있는 듯, 내 마음도 잔잔하다가 울컥 울컥 거리며 출렁거리고 있다. 어제도 그 곳에는 봄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사랑스런 아내와 두 아들이 목놓아 우는 소리를 담아 얼굴에 흐르는 눈물처럼 말없이 대지에 떨어지고 있었다.

아직 봄을 느끼지 못해 두터운 검은 양복을 입은 중년 신사들도 봄추위를 느끼며 떨어지는 봄비를 피해 화장터의 한 켠 지붕 밑에 뺨곡히 모여 떨고 있는 모습이 비에 젖어 전기줄에 앉아 움츠린 새들과 다를 바 없이 한 생명을 소리없이 지키고 있는 것 같이 힘이 없어 보였다.

아~ 가신 님이여! 그대는 우리의 마음을 아는가? 아~ 가신 님이여! 당신은 지금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의 절규하는 저 소리를 듣고 있는가?

아~ 가신 님이여! 당신이 그토록 아끼고, 좋아하던 직원들의 찢어지는 듯한 마음의 고통을 아는가? 아~ 가신 님이여! 당신이 존경하던 사장님의 영결사에 당신이 그 어려운 기술사 자격증을 따고 축하하는 자리에서 순진하고 겸손해 보이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는 사장님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있는가?

아~ 가신 님이여! 나와 같이 일을 한지 60여일 만에 이렇게 허무하게 영원한 이별을 하고 영영 홀로 떠나가니 찢어질듯한 내 마음을 당신은 느끼는가?

“우리 부서 일은 내가 알아서 직원들과 합심해서 틀림없이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던 당신의 자신감과 강건한 자존심에서 나오는 소리없는 리더십을 보여 주지 못하고 떠나가니 가눌 곳 없는 내 마음을 당신은 아는가? 당신이 떠나기 며칠 전 내가 현장을 돌



러 보고 작은 일을 먼저 알고 당신께 말을 꺼내니 얼굴이 붉어지며 당황하던 그 모습에서 나는 간부로서의 당신의 책임감과 당신의 리더십을 느끼고 내가 평소 좋아 하던 '人生樂 在相知心'이라는 한문을 얘기하며 동감의 웃음을 나눈 지 며칠 지나서 이렇게 영영 헤어지니 내 마음 평안할 수 있겠는가?

가신님이여! 당신의 떠난 자리가 너무 커 보이고 당신의 정취가 마음 속을 달구어도 이제 하나씩 하나씩 현실속으로 파고 들어야 하는 우리의 삶을 이해 하시구려.

가신님이여! 이제 하늘 나라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 부모님, 형제, 그리고 당신의 모든 친척들을 두루 살피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흠뻑 주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구려. 이제 당신이 못다한 일들은 나와 당신이 그토록 아끼던 직원들이 당신의 뜻을 받들어 합심해서 하나 하나 이룩해 나갈 테니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시옵소서.

가신님이시여!

이제 편안히 영면하시옵소서.

2005년 4월 10일 오후에 당신을 못 잊는 상사가

-감사합니다-

3월 26일 故 한정택 부장이 행방불명이 된 후 4월 9일 장례식까지 2주간의 기간 동안 걱정을 해주시고, 가족을 찾아 직접 위로해 주신 사장님, 故 한정택 부장을 빨리 찾아 내라고 경찰서 고위층에게 독촉을 해주신 감사님, 행방불명 후 직접 수색 작업과 시신이 발견될 때까지 진두지휘하신 생산본부장님, 3교대를 하면서 밤잠을 자지도 못하고, 아침부터 상사인 故 한정택 부장을 찾기 위해 이 산, 저 산을 헤매며 수고한 25명의 소결체 가족과 전 세라믹처 직원 여러분 그리고 바쁜 시간을 내서 수색을 위해 협조해주신 생산 본부와 경영지원본부, 설계기술원 전 직원 여러분께 세라믹처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세라믹처 직원들이 수고한다고 경비를 지원 해주신 노심설계처 박찬오 처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생산본부 각 처장님들, 품질보증실장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소요 비용 외 남은 비용은 유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전해 드릴 생각입니다.

이번 일로 저 자신은 원자력연료인의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게 됨은 물론, EQ 경영의 큰 뜻을 보여준 전 직원의 한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북부경찰서 서장님 이하 수사팀 일동이 하나 같이 저에게 하는 말이 '한전원자력연료 같은 회사는 처음 보았다'는 말이었습니다. 유가족 역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너무 고마워서 보답을 해야 하는데 걱정'이라는 말씀입니다.

한전원자력연료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라믹처장 **홍종승** 드림

게시판

승격 축하합니다

〈사무직·기술직·연구직〉

이선우(총무부), 한용구(연료서비스실), 김민수(종합정보시스템부), 임상현(부품개발부), 김상일(핵설계1실)
- 이상 4직급 1등급, 4. 12.부

〈생산·행정기술직〉

박상수(품질관리2부), 서의석, 이세기(이상 경수로집합체부), 노휘열(재변환부)
- 이상 2직급 1등급, 4. 12.부

김연식(품질관리1부), 강영식(방사선안전부), 강영식(방사선안전부), 이상환(설비기술부), 정연두(경수로기술부), 윤영석(경수로집합체부), 김상식(중수로부품부), 신희찬(세라믹기술부), 한대회(경수로소결체부)
- 이상 3직급 1등급, 4. 12.부

입사

박면호, 서동규, 주민제, 김정문(이상 세라믹처)
- 생산기술직 4직급, 3.21.부

소속변경 및 임명

김석봉(경영혁신추진반장),
이법재(경영혁신추진반 TPM추진팀장),
정상현(경영혁신추진반 경영혁신팀),
이신영, 김용재(경영혁신추진반 TPM추진팀)

조장 임명

김은혜(연료서비스실),
송영섭(경수로집합체부)
- 이상 3.4.부

경영혁신 변화요원 임명

〈경영지원본부〉

기획조정실 : 홍보부 모혜진
사업관리실 : 사업관리부 염준호
총무실 : 총무부 강원모
노무관리실 : 노무부 정규홍

〈품질보증실〉

품질기술·관리1부 : 품질관리1부 이의재
품질보증·관리2부 : 품질보증부 김영로

〈생산본부〉

방사선환경실 : 계량관리부 김용찬
연료서비스실 : 연료서비스실 한용구
생산관리처 : 자재관리부 신연식
경수로연료처 : 경수로집합체부 국순기
중수로연료처 : 중수로기술부 조영춘
세라믹처 : 세라믹기술부 공상필
신규사업처 : 세라믹설비증설부 정동현

〈설계기술원〉

기술관리처 : 연구관리부 연진호
노심설계처 : 핵설계3실 박상원
핵연료설계처 : 집합체설계2실 이규석
안전해석처 : 열수력설계실 김강훈

직종변경

변성섭(재변환부),
김중성(경수로소결체부)-이상 생산기술직 4직급
윤현진(품질보증부),
김용임(생산관리부)-이상 행정기술직 4직급, 3.4.부

결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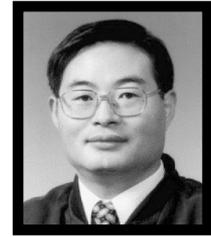
한춘궁(총무부, 장녀, 3. 26.)

조의

김천범(시설관리부, 부친상, 3.22.)
정연두(경수로기술부, 모친상, 3.26.)
김봉조(품질보증실, 부친상, 4.2.)
권기준(경수로기술부, 부친상, 4.4.)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故 한정택 부장의 영결식이 제 2공장 현관 앞에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고인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QUIZ 퀴즈 풀이. 한마당..

- 1 우리 회사가 지난 4월 1일 한국경제신문사로부터 수상한 산업 안전 관련 상의 이름은?
- 2 진흥왕 14년(553년)에 의신조사가 세운 사찰로 속리산에 자리 잡은 우리 나라 대표적 불교 사찰 중 하나는?
- 3 선진국에서 삶의 속도를 늦추어 삶을 제대로 인식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르는 말은?

※엽서에 정답을 적어 편집실로 보내주시시오. 당첨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당첨 축하

(편집실에서 마련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지난호 퀴즈 당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성정아 (유성구 신성동)
- ▶ 신학균 (한국원자력연구소)
- ▶ 이소연 (유성구 전민동)
- ▶ 남정성 (예산관리부)

준비 땅!!



시. 작. 은 항상 설레임과 동시에
새로운 마음과 각오를 다지게끔 합니다.
매년, 한 해의 첫날
종이에 끄적대는 각오들과 다짐들이 말해주듯
100m 달리기 출발 선상에서의 두근거리는 가슴이 말해주듯
시. 작. 은 무언가 다를 것 같은 기대감과
무언가 달라져야겠다는 의욕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1월의 첫날 세웠던 나와 의 약속에
슬슬 깨어나고 계신가요?
이제 두꺼운 옷에 지쳤던 겨울이 다 지나가고,
계절의 시.작., 봄이 다가왔습니다.

매년, 매계절, 매일 매순간은
새로운 각오와 다짐들을 실천하기에 결코 늦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말했던 것처럼
오늘 하루는 당신이 살아갈 날들의 첫 날이기 때문입니다.

봄!
또 다시 시. 작. 입니다!!



국가 교정기관 운영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는

국가표준기본법 및 ISO/IEC 17025 요건에 따른

체계적인 교정 품질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교정품질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객을 최우선으로 고품질 교정과 신속한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원자력연료를 설계·제조하는
원자력연료 전문회사입니다.



■ 교정기관 인정번호 : KC01-033

■ 교정기관 인정항목

- 길이분야
깊이게이지, 높이게이지, 다이얼게이지, 링게이지,
내·외측 마이크로미터, 플러그 게이지, 내·외측
버니어캘리퍼스, 테스트인디케이터, 다이얼캘리퍼
게이지(내경), 다이얼캘리퍼 게이지(외경)
- 표면거칠기분야
촉침식표면거칠기 측정기, 표면거칠기 표준시편,
표면거칠기 비교시편

■ 교정의뢰시 연락처

- TEL:(042) 868-1741 / FAX:(042) 868-1719
- 담당부서 : 품질기술부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KOREA NUCLEAR FUEL CO., LTD.

305-353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진동 493번지 / <http://www.knfc.co.kr>